회룡문화

통권 제30호



의정부문화원

회룡문화

회룡문화 통권 제30호

의정부문화원

회룡문화

회룡문화 통권 제30호
발행인 조수기
발행처 의정부문화원
홈페이지 www.iloveculture.or.kr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123
전화 031-872-5678
편집 · 인쇄 애드플러스

Contents

4 발간사

6 회룡문화제 제29회 회룡문화제 지상퍼레이드

16 문화유적답사 문화가족 타지역 문화유적답사 – 최영희
(소수서원, 영주 부석사, 안동하회마을)

24 기획특집Ⅰ 의정부시사(시 승격50주년)출판하다

26 문화가족기고문 규방공예, 원정규방 – 안희영
서양화, 프로포즈 – 박현정
예인챔버오케스트라 – 김누리
의정부문화원장 – 조수기

34 기획특집Ⅱ 정문부묘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 – 최영희

60 지역문화예술원고 의정부 문화예술 둘러보기 – 유준식
가을에 만난 천년고찰 회룡사 – 이국진

74 예술제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76 의정부문화원소식 문화원 이모저모

84 문화학교 의정부문화원 문화학교 소개









문화 융합의 해



지난 2월 28일 저녁 동두천시 생연동 공터에서 동두천문화원이 주최하는 "정월대보름 대동놀이"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의정부, 양주문화원이 함께 참여하여 3개 문화원의 공연 팀이 장기자랑 공연도 하고 참가 문화원간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로 우정을 돈독히 하였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달집태우기"에서 큰 불꽃을 바라보며 국가 사회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면서 의, 양, 동이 문화로 하나가 되자고 기원했습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민심이 이완되어 크고 작은 사건으로 사회 분위기가 침울해져 경제도 침체 되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밝게 하는 약은 문화예술이지만 그것마저 금지와 자제로 답답함과 울적함을 풀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처럼 이제 을미년을 맞아 묵은 악연들을 달집태우기 불꽃 속에 모두 태워 버리고 금년에는 새해에 설계한 일들이 크게 성취되도록 함께 노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금년 초에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문화예술 사업을 후원하는「메세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도 문화예술 단체들이 지역의 여론 순화와 화합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 북을 울리고 진군나팔을 불며 전진하고 지역의 기업과 사회 지도층이 후원하는 문화융합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해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정부문화원의 활동소식과 2015년 사업계획을 담은 "회룡소식지"를 발간하오니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 시민 여러분들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2015. 4.

의정부문화원장 조 수 기

제29회 회룡문화제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축제, 제29회 회룡문화제가 지난 10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의정부시 곳곳에서 거행되었다. 금년 회룡문화제는 의정부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의정부 역사를 재조명 하는 뜻으로, 화려한 역사의 옛 양주문화권의 중심에 우뚝서있는 의정부의 문화적 미래를 시작하며 도약발전을 기원하는 행사로 준비하고 진행되었다.
행사 프로그램 전반에 내실을 기하여 양보다 질을 높인 행사로 평가 받았다.











10월 2일 경기도청북부청사 앞 특설무대에서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의 개막선언과 기념타고로 회룡문화제의 개막을 알렸다.

의정부 44만 시민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의정부의 대표축제인 회룡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의 염원을 담아 시민을 대표해서 안병용 시장과, 최경자 시의회의장, 조수기 문화원장이 최상의 예를 갖추어 차를 올리는 진다례식 개막 퍼포먼스로 회룡문화제의 막을 열었다.


돈까스




제29회 희룡문화제


특별시



회룡의 만남과 의·양·동 통합의 서막을 알리는 합동 공연으로 의정부·양주·동두천 전문 예술팀인 의정부시립무용단, 양주별산대놀이보존회, 동두천시립이담풍물단, 비보이 퓨전 MC, 밴드 The play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아리랑, 아리랑!" 기념공연을 하여 문화예술로 하나 되는 의·양·동을 표현하였다. 뒤를 이어 코요태, 박완규, 윙크, 김종환, 리아킴등 연예인의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열기를 더하였다.



회룡종합전시회는 규방공예, 문인화, 한국화, 닥종이인형, 서예 등 다양한 분야를 전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체험도 함께 구성하여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별전으로 의정부 시사 8권 사진으로 읽는 의정부를 모티브로 하여 의정부서양화반의 '옛길을 추억하다'도 진행되었다.













이밖에도 은빛회룡제, 의정부 in 뮤직페스티벌, 의정부 in 기타페스티벌, 의정부 문화인물인 의순공주의 넋을 기리는 우리 지역 전통공연인 정주당놀이재연행사, 다양한 장르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한마당인 회룡난장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우리 지역의 여러 단체 및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펼쳐진 부대행사로 서로의 파트너십을 확인하고 화합의 장이 되었다.











찾아가는 회룡문화제 '동대항 노래자랑'은 9월 19일부터 9월 27일 까지 4개 권역별로 나누어 미리 동별로 예선전을 치루어 시민 간 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지면서 애향심고취와 화합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어 많은 시민들의 참여과 관람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4일 행복로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폐막행사는 예선전을 통과한 15개팀이 '동대항 노래자랑'에 참여하여 열띤 경연을 벌이며 국민가요 땡벌의 주인공 강진씨와 신세대 가수 다빗이 출연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시민모두가 즐기며 소통한 제29회 회룡문화제의 막을 내렸다.


GIORDANO
Pizza Hut


제29회 회룡문화제
Pizza Hut

제29회 회룡문화제 홍보포스터 및 프로그램 팜플릿










제 29 회 회룡문화제
제 29 회 회룡문화제
Pizza Hut




SMOOTHIE KING
SMOOTHIE KING

문화가족 타지역 문화유적답사

- 소수서원, 영주 부석사, 안동하회마을

최 영 희 (편집부)



2014년 6월 24일, 이른 아침 6시 40분 문화원에 집합하여 7시경에 버스 3대가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순흥문화유적권으로 우리나라 유교의 본향인 소수서원과 선인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선비촌, 유교 전문박물관인 소수박물관 그리고 금성단 등 선비정신을 배울 수 있는 종합학습관광지이다.

〈 소수서원 〉

서원은 조선시대 사림의 사상적 본거지이자 활동기반으로서 사림의 운명공동체로 강학(講學)과 선현(先賢)의 제향(祭享) 두 기능을 담당했다. 이곳의 중요한 봉안인물은 회헌 안향(晦軒 安珦, 1243~1306)선생과 신재 주세붕(愼齋 周世鵬, 1495 ~ 1554)선생이다.

회헌 안향(晦軒 安珦, 1243~1306) 선생의 처음 이름은 유(裕)요, 후일 향(珦)으로 고쳤으며 회암 주희(晦庵 朱熹)를 흠모하여 스스로 호를 회헌(晦軒)이라 했고 본관은 순흥이며 시호는 문성공(文成公)이다. 안향선생은 소백산 정기를 받고 태어나 순흥이 배출한 위대한 인물이며 우리나라에 중국의 주자학(朱 子學)을 최초로 유입 보급해 이 땅에 유풍(儒風)을 진작한 장본인이다. 그의 나이 16~18세 때에는 고향 순흥의 숙수사를 왕래하면서 독학으로 경서강독 등 수학에 전념하였으며 1260년(원종1년) 18세 되던 해 과거에 급제, 개성에서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64세를 일기로 생을 마칠 때까지 도첨의중찬(都僉議中贊) 등 내외 요직을 두루 거친 명관(名官)이었다.

1289년(충렬왕 15년) 11월에는 고려 유학제거(儒學提擧)가 되어 왕과 공주를 호위하며 원나라에 들어가 주자전서(朱子全書)와 공자, 주자의 화상(畵像)을 가지고 이듬해 3월에 돌아와 주자학(朱子學)을 연구하였다.

이후 1303년(충렬왕 29년)에는 국학학정(國學學正) 김문정(金文鼎) 을 중국 강남에 보내어 공자와 72제자의 화상, 문묘에 사용할 제기, 악기와 육경(六經), 제자(諸 子), 사서(四書), 주자서(朱子書) 등을 구해오게 하였다.

1304년 6월 국학의 대성전이 완성되자 거기에 공자를 비롯한 선성(先聖)들의 화상을 모시고 문묘의 제도를 갖추게 하였다.그는 오늘날의 육영재단에 해당하는 섬학전(贍學錢)을 설치해 장학사업을 펼쳐 인재양성을 장려하고 성리학보급에 활력의 샘줄기를 터놓았다.

한편 선생이 살던 고려후기는 불교의 폐해와 무인(武人)의 장기집권 및 몽고의 침입과 홍건적의 난 등 이민족의 잦은 침입으로 대내외적으로 국운쇠퇴기였다.

이러한 때에 안향 선생은 중국 원나라에 가서 새로운 사상인 주자학을 도입해 새로운 학풍으로 어지러운 통치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안향 선생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마침내 주자학을 수양(修養)과 치세(治世)의 원리로 삼은 성리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훗날 새로운 왕조 조선을 개창하게 되고 조선왕조가 성리학을 나라의 통치이념으로 삼게 되면서 민족의 스승으로, 동방 도학(道學)의 비조로 추앙받게 되었다. 선생의 묘소는 오늘날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눌목리(訥木里) 구정동(口井洞)에 있다.

한편 1917년에는 중국 공자의 77대손인 공덕성(孔德成) 씨가 회헌 안향선생을 ' 안자(安子)' 로 높이 찬양하여 지은 찬문과 안자묘(安子廟) 편액친필글씨를 보내왔다. 또한 공자의 76대손인 공영 이(孔令貽)씨는 회헌 안향의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지어 보내왔다.

공덕성씨와 공영이씨가 보내온 안자묘 편액친필글씨와 회헌 안향의 신도비명은 1977년 경기도 시흥시 의왕읍에 안자묘 건립과 함께 그곳에 보존되고 있다.



그림 1. 소수서원, 명종어필 사액현판

신재 주세붕 (愼齋 周世鵬, 1495 ~ 1554) 선생은 조선시대의 석학이며 도학자로 호는 신재(愼齋), 본관은 상주(尙州), 시호는 문민공(文敏公)이며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의 시초인 백운동서원의 창건자이다.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漆原)면 출생으로 1522년(중종 17) 생원 때 별시문과(別試文科) 을과에 급제한 뒤 정자(正字)가 되고, 검열(檢閱) · 부수찬(副修撰)을 역임하다 김안로(金安老)의 배척을 받고 강원도도사(江原道都事)에 좌천되었다.

주세붕 선생은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듬해인 1542년(중종37년) 평소 흠모하던 고려말의 학자 안향선생을 배향하고 향촌교화를 위해 안향선생이 어린시절 수학했던 순흥 숙수사 터에 서원을 건립한다. 서원을 통하여 사림을 교육하고 아울러 사림의 중심기구로 삼아 향촌의 풍속을 교화 하려는 목적으로 유생들과 강론(講論)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주세붕 선생이 이곳에 사묘를 건립한 것은 안향 선생의 영정을 모셔오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1456(세조 2년) 9월 순흥에 유배된 세종의 다섯째 아들 금성대군(錦城大君)과 순흥부사 이보흠 (李甫欽, ?-1457)의 단종 복위 밀모 사건으로 1457년 순흥부가 폐지되면서 풍기군의 행정구역 으로 편입되고, 이에 순흥향교가 폐쇄됨에 따라 안향 선생의 영정은 서울의 순흥안씨 대종가로 옮겨져 봉안되기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주세붕 선생은"공의 영정이 순흥부 향교에 봉안되었는데, 정축(丁丑,세조3)의 변고로 순흥부가 없어지자 한성의 대종가로 옮겨 봉안하였다. 내(주세붕)가 공의 종손 안정의 집에서 공의 영정을 본 적이 있었는데, 멀리서 바라보면 엄연하고 가까이 다가서면 온화하니 진실로 대인군자의 용모로서 생전의 모습을 친히 보는 듯하여 마음속에 길이 간직하고 있었다....." 라고『회헌선생실기(晦軒先生實記)』에 기록하고 있다.

일행은 소수서원 → 소수박물관 → 선비촌을 둘러보고 다음 행선지, 영주부석사로로 향했다.

〈 사무치는 천 년의 그리움, 화엄종찰 부석사 〉



그림 2. 부석사 전경

태백산 정기가 뻗쳐 소백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그 봉황산 기슭에 자리한 부석사는 자연의 질서 속에 인공의 미가 조화된 천년고찰로 선사의 지혜와 종교관이 숨쉬고 있다.

상공에서 바라보면 화엄사상을 상징하는'화(華)'의 형상을 연상할 수 있고 무량수전에서 내려다보면 비상하는 새를 볼 수 있는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년) 해동 화엄종을 개종한 의상대사가 왕명으로 창건한 화엄종의 발원지이다. 우리나라 5대 명찰 중 하나인 부석사는 의상대사가 왕명에 따라 창건한 사찰로 고구려의 먼지나 백제의 바람이 미치지 못하며 마소가 근접할 수 없는 곳을 찾아 5년여를 헤맨 끝에 봉황산 중턱에 화엄경의 근본 도량을 세웠다고 한다.

통일신라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였던 화엄사상이 서라벌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의 사찰에 뿌리를 내리고 퍼져 간 것은 의문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화엄사상의 요체를 이해하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우주의 본질은 서로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관계를 바로 보고 거기서 하나와 전체의 원리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다시 하나가 된다(一中一切多中一 一卽一切多卽一)」는 원융사상은 그 당시 국가경영에서 가장 절실했던 사상철학이기도 했다. 삼국이라는 이질적인 국가체제가 하나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통치체제의 구축도 중요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삼국의 백성들이



그림3. 부석사에서 내려다보는 산맥

하나가 될 수 있는 정신적 구심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첫 출발점을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나누어지는 봉황산 중턱으로 삼은 것은 이곳이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구려와 신라가 일찍부터 힘을 겨루었던 군사적 요충지로 신라는 이곳을 장악해야 고구려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곳에 삼국 경영의 새로운 사상적 웅지를 펼쳤다는 것은 국토의 외진 곳에 위치한 수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가 깃든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창건 이래 화엄종풍을 드날린 부석사는 경사진 봉황산 중턱을 깎아 수많은 계단과 돌축대를 배치하여 무한대로 펼쳐 진 소백산맥의 봉우리들을 절 마당으로 끌어들이고 축대 또한 첩첩 조금씩 각도를 달리해 앞산 능선과 조화를 이루었다. 나아가 무량수전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홉 단계의 돌계단을 거쳐야 하는 이 가람배치가 단순히 산중턱이라는 입지조건 때문에 계단과 축대를 배치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유홍준 교수는 "극락세계의 9품 만다라의 이미지를 건축적 구조로 구현 시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즉 도량 자체를 커다란 화엄불법(華嚴佛法)의 세계로 상징화시키기 위해 무량수전에 이르기까지 모두 아홉 단계의 돌계단을 거치는 구도를 설정한 것이며 아울러 중심축선을 일직선으로 하지 않고 마지막 안양루에 오르면서 살짝 꺾이게 하여 자연스러움을 연출한 것이다.

9품 만다라는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극락세계에 이르는 한 방법으로 하품하생(下品下生)에서 중품중생(中品中生) 상품상생(上品上生)에 이르기까지 아홉 가지 단계를 수행하면 극락세계에 환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부석사의 도량은 바로 그 9품 만다라를 상징화한 것으로 천왕문은 하품하생, 범종각은 중품중생, 안양루는 상품상생으로 마지막 무량수전 앞에 이르면 누구라도 업을 씻고 극락정토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음 산 아랫자락의 일주문을 지나 차츰차츰 경사진 길을 따라 천왕문, 범종각을 거쳐 드디어 산 중턱의 안양루와 무량수전에 이르는 길은 고해의 세계에서 극락의 세계로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의상대사 이후 화엄종의 중심도량으로 자리 잡은 부석사는 고려 초에 병화를 입었다가 11세기 중반 원융국사에 의해 중수되었고, 고려 말에는 진각국사가 대규모 중창불사를 일으켜 면모를 일신하였다.



그림4. 부석사의 부석(浮石)

浮石寺(부석사)

평생에 여가 없어 이름난 곳 못 왔더니
백수가 된 오늘에야 안양루에 올랐구나.
그림 같은 강산은 동남으로 벌려 있고
천지는 부평 같아 밤낮으로 떠 있구나.
지나간 모든 일이 말 타고 달려온 듯
우주간에 내 한 몸이 오리마냥 헤엄치네.
백 년 동안 몇 번이나 이런 경치 구경할까
세월은 무정하다 나는 벌써 늙어 있네.

– 부석사 안양루에 걸린 김삿갓 시(詩)

〈 종교로 승화된 사랑 〉

선묘각은 무량수전 북서쪽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의상 조사의 창건 설화와 관련된 인물인 선묘낭자를 모신 건물이다. 규모도 작고 기단도 없어 마치 작은 사찰의 산신각 같은 느낌을 준다. 내부에는 1975년에 그린 선묘의 영정이 걸려 있다.

서기 699년에 중국 땅을 밟은 의상은 잠시 머물게 된 집에서 아름다운 처녀 선묘와 만나게 된다. 선묘는 첫눈에 의상에게 마음을 뺏기지만 그가 여자를 멀리하므로 두 사람은 끝내 연을 맺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다. 의상이 적산에 있는 법화원으로 옮겨 머무는 동안 아침저녁으로 탁발을 나설 때 선묘가 몰래 바라보면서 흠모했다고 한다. 선묘는 절 밖에서 의상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 마음을 전하려 했으나 의상이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얼마 후 의상은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떠났으며 근처 종남산에서 화엄경을 설법하는 지엄대사의 문하에 들어가 10년간 불교 공부를 했다.

의상은 유학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가 신라로 돌아가기 위해 등주 항구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은 선묘는 자기가 손수 지은 법복을 전해 주고자 바닷가로 갔으나 이미 의상을 태운 배는 항구를 떠나고 있었다. 선묘는 그리워하던 의상에게 법복이 무사히 전달되도록 마음속으로 빌면서 배를 향하여 던지니 법복은 무사히 의상 품안으로 떨어졌다.



그림5. 부석사 선묘화

선묘 또한 평소 독실한 신도로써 의상을 사모하면서도 의상이 불법을 공부하여 득도하고 무사히 귀국하도록 부처님에게 빌었다. 의상이 떠나자 함께 따라 갈 수 없게 된 선묘는 결국 자신이 용이 되게 해 달라고 하늘에 빌면서 황해바다에 몸을 던졌다. 이에 하늘이 감읍하여 선묘는 용이 되어 의상이 탄 배를 호위하면서 신라까지 무사히 보살폈다고 한다.

귀국 후 의상은 명산대천에 사찰을 지으라는 문무왕의 명을 받고 마침내 절터로 정한 곳이 곧 지금의 부석사 자리이다. 그러나 그가 이 자리에 절을 지으려고 했으나 이미 이곳에 와서 절을 짓고 사는 5백 여 명의 다른 종파의 불승들이 크게 반발하였고 의상이 마음속으로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자 갑자기 하늘에서 바위로 변한 선묘의 용이 나타나 3일 동안 공중에 머물면서 반대하는 불승들을 향하여 내리칠 듯 위협하니 그들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종국에는 굴복하여 새 절을 짓는데 협조하게 되었다.

선묘의 넋이 의상을 보호하고 불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된 것으로 바위가 되어 땅에 내려앉은 바위를 '부석(浮石)'이라 하고 선묘의 도움으로 지어진 이절의 이름을 '부석사'라고 지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위아래 바위 사이 약간의 틈이 있어 실을 넣어 당기면 걸림 없이 드나들어 뜬 돌임을 알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한 천 삼백년 전 사랑이 주는 감동이 운무처럼 밀려올 때 그 여운을 몰고 삼층석탑이 있는 뒤편 오솔길을 따라 조사당으로 향한다. 전 가람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위치한 조사당은 의상대사의 영정을 봉안한 곳으로 소박하면서도 간결한 느낌을 주는 맞배집이며 무량수전과는 또 다른 건축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이 조사당 벽면에는 고려시대의 벽화가 그려져 있어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지금은 벽면 전체를 떼어 내어 보호각에 따로 보존하고 있고 그곳엔 모사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또한 조사당 옆에는 의상대사가 꽂은 지팡이가 자랐다는 선비화가 쇠창살로 보호된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부석사에서 내려와 인근 식당에서 산채비빔밥으로 점심공양을 한 후, 안동으로 향했다.

〈 병산서원(屛山書院) 〉

병산서원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교적 건축물로서, 류성룡(柳成龍)과 그의 셋째아들 류진(柳袗)을 배향한 서원이다.

류성룡(柳成龍)선생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 류성룡 선생의 문집을 비롯해 각종 문헌 1000여종 3000여책이 소장 되어 있다. 선생이 돌아가신 후 선생의 제자들과 유림이 뜻을 같이 하여, 서원 안에 사당(존덕사)을 세우고 위패를 모셔서 선생의 학덕을 이어받고 추모하며 향사(제사)를 올리던 서원이다. 이 제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림6. 병산서원 전경

〈 병산서원이 설립된 유래 〉

고려 때, 안동의 풍산현에 풍악서당이 있어 풍산류씨 가문 자제들이 모여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후 고려 말, 공민왕 때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 왕의 행차가 풍산을 지날 무렵, 그곳 풍악서당에서 유생들이 난리 중에서도 학문에 열중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하였다고 한다.

이때, 많은 서책과 사패지(賜牌地-왕으로부터 하사받은 토지)를 주어 유생들을 더욱 학문에 열중하도록 격려 하였다. 이후, 약 200년이 지나면서 서당 가까이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길이 생기며, 차츰 시끄러워 지면서 유림들이 모여 서당을 옮길 것을 물색하고 있었다.

이때, 마침 서애 류성룡선생께서 부친상을 당하시고 하회에 와 계실 때였기에 유림들은 그 일을 선생에게 문의하였다고 한다. 서애선생께선 그 문의를 듣고 병산이 가장 적당할 것이라고 권하게 되었고 유림들은 선생의 뜻에 따라 서당을 병산으로 옮기고 "병산서당"이라고 고쳐 부르게 되었다.

임진왜란으로 불에 탄 서당을 1607년에 다시 중건하였고, 1610년에 사당(존덕사)을 건립하면서 서원이 되었다. 그 후 병산서원은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였고,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으며,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에도 사라지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하나가 되었다.

병산서원은 빼어난 자연경관이 병풍을 둘러친 듯하여 '병산'이라 불리기 시작하였다. 화산을 등지고 앞으로 낙동강이 백사장과 함께 굽이쳐 흘러가고 그 투명한 푸름은 소나무의 짙푸름과 서로 다투는 듯 조화롭다. 만대루에서는 주변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입교당에서는 자연과 조화된 병산서원의 미(美)를 더욱 느낄 수 있다. 또한 병산서원은 앞의 병산(안산)이 너무 높고 급하여 강물은 빨리 흐르고, 땅의 기운이 쌓일 틈이 없이 계속 밀려 내려가므로 이런 터에서는 재물이 쌓일 틈이 없어 살림집의 입지로는 부적합하다고 한다.



그림7. 병산서원 만세루

그러나 빨리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해야하는 교육시설로는 안성맞춤인 터가 되는 것이다. 인적이 드물어 학문수양에 방해가 없으며 뛰어난 경관을 앞에 하여 꽉 짜인 서원의 규율과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숨구멍이 트여있는 그런 곳이기에 서원의 터로는 안성맞춤이었다. 「풍악서당」은 1572년(선조 5) 서애 류성룡(1542-1607년)선생이 31세 때에 후학 양성을 위해 풍산에서 병산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후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병에 의해 불태워졌다. 1607년 서애선생이 타계하자 1614년(광해군 6)에 선생의 제자인 우복 정경세(1563-1633)가 선생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하여 유림(儒林)과 뜻을 모아 사당(祠堂)인 존덕사(尊德祠)를 창건하여 선생을 봉안하면서 병산서원으로 개칭 위상이 바뀌게 되었다.

병산서원은 1629년 선생의 셋째 아들 수암 류진(1582-1635)을 추가 배향하였으며, 1863년(철종 14)에 사액서원으로 승격하였다.

선현 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으며, 1868년(고종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내렸을 때에도 훼철(毁撤)되지 않고 보호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대대적인 보수가 행해졌으며 강당은 1921년에, 사당은 1937년 각각 다시 지어졌다. 매년 3월 중정(中丁 : 두 번째 丁日)과 9월 중정에 향사례를 지내고 있다. 1978년 3월 31일에 사적 제260호로 지정되었다.

〈 안동 하회마을의 특징 〉

낙동강이 큰 S자 모양으로 마을 주변을 휘돌아간다. 그래서 하회(河回)라 했다. 오른편 안동시에서 흘러나와 완 편으로 흘러간다.

안동하회마을(중요민속자료 제122호)은 풍산류씨가 600여 년간 대대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마을이며, 와가(瓦家:기와집) 초가(草家)가 오랜 역사 속에서도 잘 보존 된 곳이다.

특히 조선시대 대 유학자인 겸암 류운룡과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룡 형제가 태어난 곳으로도 유명하다.



그림8. 안동 하회마을 전경

마을 이름을 하회(河回)라 한 것은 낙동강이 'S'자 모양으로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데서 유래되었다. 하회마을은 풍수지리적으로 태극형 · 연화부수형 · 행주형에 일컬어지며, 이미 조선시대부터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도 유명하였다. 마을의 동쪽에 태백산에서 뻗어 나온 해발 271m의 화산(花山)이 있고, 이 화산의 줄기가 낮은 구릉지를 형성하면서 마을의 서쪽 끝까지 뻗어있으며, 수령이 600여 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 곳이 마을에서 가장 높은 중심부에 해당한다.

하회마을의 집들은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강을 향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좌향이 일정하지 않다. 한국의 다른 마을의 집들이 정남향 또는 동남향을 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또한 큰 와가(기와집)를 중심으로 주변의 초가들이 원형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하겠다.

하회마을에는 서민들이 놀았던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선비들의 풍류놀이였던 '선유줄불놀이'가 현재까지도 전승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생활문화와 고건축양식을 잘 보여주는 문화유산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세거(世居)한 성씨(姓氏)들

하회마을의 풍산류씨의 세거 이전에는 허씨(許氏)와 안씨(安氏)가 먼저 세거하였다고 한다. 하회마을에는 "허씨 터전에 안씨 문전에 류씨 배판"이란 말이 전래되고 있으며, 하회탈의 제작자가 「허도령」이었다는 구전(口傳) 및 강 건너 광덕동의 건짓골에 허정승(許政丞)의 묘가 있어 지금도 해마다 류씨들이 벌초를 하고 있으며, 숭정(崇禎)15년(1642)의 동원록(洞員錄)에는 류씨 이외에도 극히 적은 가구의 허씨와 안씨(安氏)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

〈 풍산류씨의 입향(入鄕)에 관한 전설 〉

풍산류씨(豊山柳氏)는 본래 풍산 상리에 살았으므로 본향(本鄕)이 풍산(豊山)이지만, 제7세 전서(典書) 류종혜(柳從惠)공이 화산에 여러 번(가뭄, 홍수, 평상시) 올라가서 물의 흐름이나 산세며 기후조건 등을 몸소 관찰한 후에 이곳으로 터를 결정했다고 한다.

입향에 관하여 「나눔」의 전설이 있는데, 집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기둥이 3번이나 넘어져 크게 낭패를 당하던 중 꿈에 신령이 현몽하기를 여기에 터를 얻으려면 3년 동안 활만인(活萬人)을 하라는 계시를 받고 큰 고개 밖에다 초막을 짓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음식과 노자 및 짚신을 나누어주기도 하고, 참외를 심어 인근에 나누어주기도 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활인(活人)을 하고서야 하회마을에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입향 후 풍산류씨들은 계속된 후손들의 중앙관계에의 진출로 점점 성장하였으며, 입암(立巖) 류중영(柳仲영), 귀촌(龜村) 류경심(柳景深), 겸암(謙菴) 류운룡(柳雲龍),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선생 등의 조선중기에 배출한 명신들로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

양진당(養眞堂)

우뚝 솟은 솟을 대문과 장엄한 분위기가 감도는 「양진당」은 풍산 류(柳)씨의 대종가(大宗家)이다. 사랑채에 걸려있는「입암고택(立巖古宅)」현판은 겸암 류운룡(柳雲龍)선생의 부친인입암(立巖) 류중영(柳仲영) 선생을 지칭한다. 당호인 「양진당(養眞堂)」은 겸암 선생의 6대 자손인 류영(柳泳, 1687~1761)공의 아호(雅號)에서 유래하였다.



그림 9. 양진단 전경

입암(立巖) 류중영 선생의 호를 따서 입암고택(立巖古宅)이라 부르며, 양진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랑채는 고려건축양식이며 안채는 이조건축양식으로서 고려양식과 이조양식이 공존하는 고택이다.

풍산류씨의 하회마을 입향조(入鄕祖) 전서(典書) 류종혜(柳從惠) 공(公)이 13세기 입향 당시에 처음 자리잡은 곳에 지어진 건물로 전해지며, 임진왜란 때 일부가 소실 된 것을 17세기에 중수하여, 고려말 건축양식과 조선중기 건축양식이 섞여 있다. 하회마을에서는 드물게 정남향(正南向)의 집이며 99칸으로 전해오지만, 지금은 53칸이 남아 있다.

문간채와 행랑채가 길게 이어져 있고, 口자 형의 안채와 그 북쪽의 사랑채를 一자 형으로 배치하였으며, 오른편 북쪽에는 2개의 사당(祠堂)이 있는데, 정면의 큰 사당은 입암 류중영 선생의 불천위(不遷位: 공신이나 대학자 등의 탁월한 자에게만 영원히 사당에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를 말하며, 불천위로 인정되면 4대조까지 올리는 제사의 관행을 깨고 후손 대대로 제사를 올린다.) 사당이며, 작은 사당은 겸암 류운룡 선생의 불천위 사당이다.

답사 후 안동시내에서 원조 안동 찜닭으로 저녁을 맛있게 먹고 돌아왔다.

의정부시사(시승격50주년) 출판하다.

사업개요

사 업 명	의정부시사 편찬
사업내용	의정부시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예술 · 자연 · 민속 등 전 분야의 변천사를 집대성하여 책자로 편찬
사업기간	2012. 9. 25 ~ 2014. 6. 30 (21개월간)
주 최	의정부시 / 의정부시 시사편찬위원회
주 관	의정부문화원
협력기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팀

사업목적

-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의정부 지역의 발전과 변천상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의정부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 의정부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자라나는 학생들과 후세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 의정부시 관련 문헌자료 · 민속자료 · 영상자료 등 기초자료를 집대성하여 의정부 연구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조직구성

편찬위원회	위 원 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부위원장	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		
	위 원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 신광식 (경기도의회 의원) 윤양식 (의정부시의회 의원), 강은희 (의정부시의회 의원) 김추윤 (신흥대학교 교수), 오길주 (경민대학교 교수) 최영희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백운화 (의정부예술의전당 본부장) 노석준 (의정부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연구추진단	단 장	조유전 (경기문화재연구원장)		
	책임연구원	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		
	상임위원	김창현	연 구 원	이태영, 김명우



추친현황

2012. 03. 14 : 시사편찬 기본계획 수립
2012. 07. 25 : 시사편찬위원회 제1차 회의
2012. 09. 25 : 의정부문화원 · 경기문화재단 협약 체결
2012. 10. 08 : 시사 편찬사업 착수
2012. 11. 30 : 시사편찬 추진상황 의원간담회 보고
2013. 01. 15 : 시사편찬위원회 제2차 회의
2013. 03. 07 : 시사편찬위원회 제3차 회의
2013. 03 ~ 04 : 원고집필 의뢰(총 76명 집필위원)
2013. 07 ~ 2014. 03 : 원고 수합 및 검수
2013. 10 ~ 2014. 03 : 원고 교열 · 교정
2014. 01. 02~02. 10 : 편집디자인 및 인쇄 제작업체 선정 및 계약
2014. 02. 17~04.30 : 편집 원고 교열 · 교정(3교)
2014. 05. 07 ~ 16 : 「의정부시사」주민 공람
2014. 06. 27 : 「의정부시사」출판기념회
2014. 06. 28 : 「의정부시사」발송
2014. 06. 30 : 사업종료




자료수집

① 기초자료 수집 현황

자료명	제공처 및 제공자	건수 및 매수
토지조사부 외	국가기록원	199건
1956년 의정부 지방선거 사진 외	국가기록원	135매
박세당 문중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386건
민적부	시청	361건
농지개혁 관련 문서류	시청	43건
사진류	시청	139매
사진·문헌·문서류	의정부 관내 학교	121매 / 35건
사진·문헌·문서류	의정부 관내 종교단체	69매 / 16건
사진·문헌·문서류	개인소장자	1,030매 / 271건
현 의정부 사진	양승조·김광수 사진작가	1,855매

② 분야별 조사사업 현황

사업명	조사원수	성과물
의정부 관련 조선총독부 관보 수집사업	2명	기초자료 조사보고서 -조선총독부 관보 1권
의정부 관련 일제강점기 신문기사 수집사업	2명	기초자료 조사보고서 -일제강점기 신문기사 4권
구술자료 수집사업	4명	구술자료 조사보고서 -토박이 1권 -이주민 1권 -여성 1권 -삶의 현장 1권
민속자료 수집사업	2명	민속자료 수집보고서 - 일상생활 1권 - 민속놀이 1권

결과물

① 권별 구성 및 원고 집필

제목	제출원고	집필자수
1권 – 의정부의 생활공간	1,936매	8명
2권 – 매성, 양주, 의정부로의 변천	1,983매	17명
3권 – 의정부의 현대생활	2,425매	18명
4권 – 의정부의 마을과 민속	1,772매	9명
5권 – 의정부 주민의 삶과 생활	1,895매	4명
6권 – 역사향기가 깃든 의정부	1,914매	11명
7권 – 자료로 살펴본 의정부	1,764매	6명
8권 – 사진으로 읽는 의정부	879매	4명
계	14,568매	76명

② 최종결과물

제작 내역	내용	수량
의정부시사 책자	1질 8권	1,000부
의정부시사 첨부 CD	CD-ROM	1,000매
의정부시사 전자책	e book	
의정부시사 홈페이지	http://ujbsis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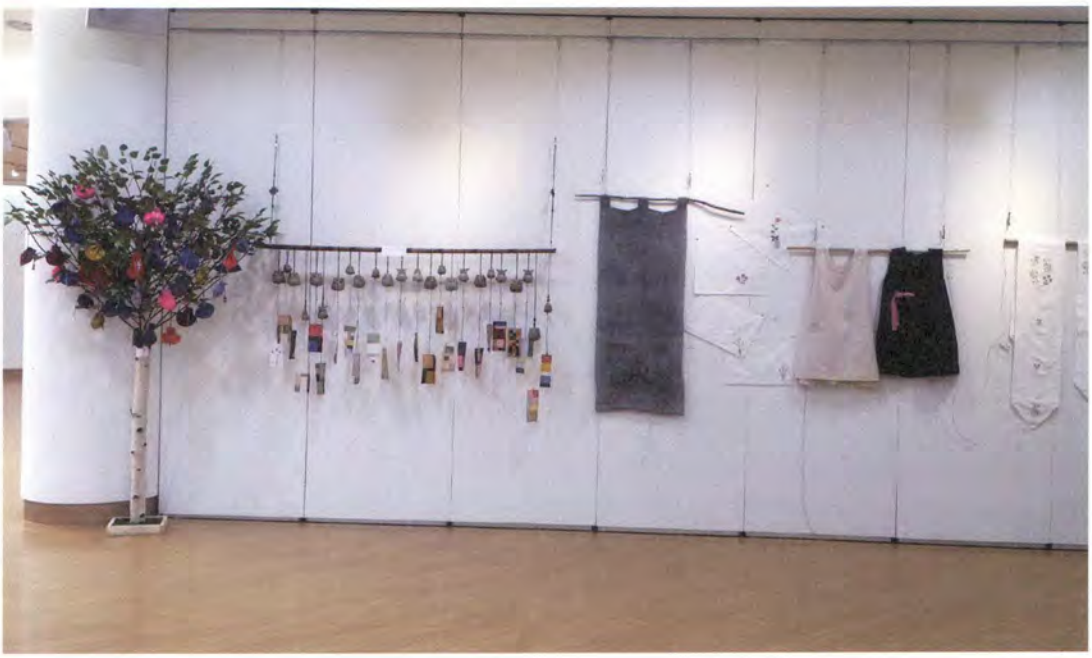
③ 최종결과물의 특징

- 발간된 책의 각 권별로 하나의 완결 형식을 갖고있어 사용자의 관심에 맞추어 책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8권 사진으로 읽는 의정부는 사진을 활용한 스토리 전개로 텍스트에 약한 현대인의 특성에 맞추었다.
-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컴퓨터, 핸드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 및 태블릿 pc등을 통해 e-book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책으로의 기본적인 기능 외에 프린트 기능과 찾고자하는 내용을 단어검색을 통해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검색 기능을 강화하였다.
- 페이스북 등의 SNS 공유 및 게시판 기능이 강화하여 우리 의정부시에 관심이 있는 남녀노소 모두가 쉽고 빠르게 의정부시사를 접할 수 있는 최적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규방 공예와 함께한
어제와 오늘 그리고 함께할 내일

원정규방. 문화원 규방공예반 강사 안희영



규방공예 문화는 옛날 우리조상 여인들이 옷감이 귀했던 시절에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침선 소품, 노리개, 조각보 등을 만들면서 시작 되었습니다.여기에는 자투리 천을 활용한 조상들의 절약 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땀 한 땀의 바느질에는 정성과 사랑, 복을 염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 문화의 하나인 규방공예는 저 혼자 즐기던 것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대한 사회복지회 미혼모 시설인 늘 푸른집에서 미혼모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늘 푸른 집에서 수업은 미혼모들에게는 태교의 효과가 있었고 나에게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녹양동에 위치한 녹양 문화 쉼터에서 규방공예 강좌를 시작 하였으며 그 후 생활 자수반도 개설 하였습니다 .

2013년에는 의정부문화원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부터는 회원이 많아졌으며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원정(苑汀)규방' 이라는 동아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원정은 '전통 문화가 꽃피는 동산의 호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서촌에 위치한 갤러리 '글'에서 원정규방 첫 번째 작품전을 열었습니다. 때가 무더운 여름 7월부터 8월 사이였는데 회원님들 모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어서 10월에는 회룡문화종합전시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람해 주셨고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에 학생들과 학부모님 들께서 많이 참여 하셨습니다. 또 10월 17일, 18일 의정부에서 열린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참가한 학생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인 규방공예, 조각보, 자수, 매듭 등의 작품을 전시하여 무료로 관람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의 바느질법중 하나인 감침질을 직접 체험 할수 있도록 카드집 목걸이, 매듭 팔찌, 악세서리 인형들을 무료 체험 하였습니다. 여학생은 물론이고 남학생들도 바늘에 실을 끼워 꼼꼼히 바느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의정부평생학습박람회에도 참여 하였습니다. 우리는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전통 문화를 알리고 체험하게 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바느질을 통해 여러 분야의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전시와 체험 학습을 하면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규방공예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보람된 한 해였습니다

제가 처음 규방 공예를 시작할때는 좋았던 시력이 지금은 돋보기를껴야 바느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바느질이 눈으로만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력이나 밝은 불빛이 아닌 느낌으로, 연륜으로 정성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유물을 재현하고 모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재의 우리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응용하고 접목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에는 원정규방 두 번째 작품 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러 곳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전통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PROPOSE(프로포즈)
행복한 그림 동아리

문화원 서양화반 강사 박현정



문화가 세상을 바꾼다고 합니다.
즐거움을 찾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얀 캔버스나 종이에 나의 흔적을 두서없이 수다 떨듯 너스레 늘어놓는 즐거움은 비밀스럽게 행복합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지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이것이 좋은 까닭은 내 주위에 모든 것들이 바쁘게 달릴 때, 남들이 쉼 없이 달려갈 때 한번쯤은 멈춰 설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 소소하지만 함께 즐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또 다른 삶을 발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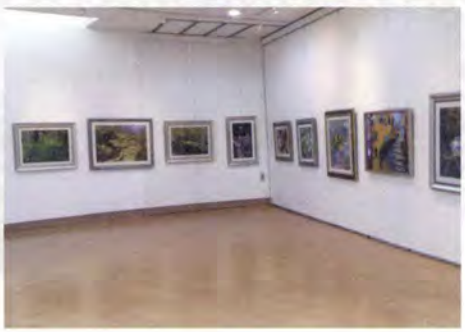
우리 프로프즈 회원님들은 문화원에 그림 그리러 오실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일 년에 2주뿐인 방학도 너무 길다고 아우성이십니다. 미국으로 이민간 회원분도 문화원 서양화반 식구들이 가장 보고 싶다고 하는 군요. 그림 배우기가 처음에는 선뜻 쉬워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동지처럼 살갑게 대해주는 회원들과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면 어느덧 예전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순진한 표정이 보입니다. 나를 찾은 느낌이여서 그런가 봅니다. 정성스럽게 완성한 그림을 전시할 때 보면 사랑스런 자식하나 어루만지듯 소중하게 보고 또 보고를 반복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행복이고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흥겨운 일상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전시와 공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마음이 풍요로워 지면서 가족 간에도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문화원이라는 소통의 울타리가 주는 특별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 서양화 동아리 프로포즈(PROPOSE)는 벌써 8회째의 정기전을 거쳐 미술협회 회원으로 정식 가입된 회원들도 있고 공모전이나 전시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실력 있는 화우들로 있습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기업이 성과를 내고 국민이 행복해야 국가가 발전합니다. 아름다운 그림 울타리에서 피어오르는 향긋한 향기가 퍼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바람입니다.








예인챔버오케스트라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음악

예인챔버오케스트라



"챔버 오케스트라? 그게 뭐야? 저 조그만 애들을 데리고 무슨 음악을 하겠다고?! 그런데 또 여자가 지휘자야? 웃긴 조합인데..." 야외 음악회를 할 때면 궁금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바이올린을 25년 넘게 해온 나의 귀가 유독 더욱 예민해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어리다고 무시하며 쳐다보던 시선들은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음악에 사르르 녹아 내려가며, 3번째 곡을 연주 할 때 쯤에는 관객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박수를 치고, 노래를 함께 불러주며 마지막곡이 끝난 뒤에는 앙코르를 외치며, 아이들에게 사랑의 응원을 보내주는 모습들을 볼 때면 '나는 정말 복 받은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예인챔버오케스트라는 34명의 아이들이 바이올린 1파트, 2파트, 3파트, 비올라, 첼로 1파트 2파트 이렇게 6개의 구성원 들이 함께 소리를 내어 하모니를 이룬다. 챔버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 실내악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현악기로만 구성된 작은 실내오케스트라 라고 표현하면 맞는 것 같다.
현악기는 다른 악기보다 좀 더 섬세하고 예민한 악기라 음정을 맞추고 연주 하는 게 까다롭지만,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는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악기이기에 분위기나 느낌을 충분히 나타내기 좋은 악기이다. 현악기는 단순히 2~3년 해서 소리를 내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단원 친구들은 대부분 어린 나이에 악기를 시작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악장 유라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하여,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간다. 그러니 이제 18살인 친구가 바이올린을 10년을 한 셈이다.
다들 나이는 어리지만 오랜 시간을 악기와 함께 해온 친구들이라 무대에 올랐을 때의 자신감과 열정이 성인 연주자들 못지않게 나온다. 그렇다 보니 음악을 할 때는 나 역시도 단원들에게 선생의 느낌보다는 동료라는 느낌이 더 든다.

처음 예인 챔버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보자고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난다. 18명의 아이들과 예인사현 선생님들... 그때는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던 예인친구들에게 한줄기 빛처럼 나타나준 의정부문화원!!!

장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허락해주셔서 우리 오케스트라는 한 겨울 놀부에게 쫓겨난 흥부 식구 같은 상황에서 벗어 날수 있었다. 그 이후에도 감사한 일들을 이 글에 전부 담을 수 없을 만큼 넘쳐났다.
음악을 공부하면서 경쟁이라는 시스템에서 살았던 우리 예인사현 선생님들은 감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음악으로 받은 모든 감사함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봉사라는 단어로 갚아나가기로 했다. 그래서 창단 이래 우리 예인 챔버 오케스트라는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다. 요양원, 학교, 군부대, 교회, 보육원, 병원 등등 안다닌 곳이 없을 정도인 것 같다. 봉사를 갈 때 마다 우리 예인챔버 친구들은 항상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삶을 이해하기란 어려울 텐데도 우리 단원들은 언제나 밝은 미소로 답해주고, 공연을 하다보면 돌발사항도 많이 생기는데, 그 때 또한 당황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위로 하거나 공연을 보러 와주 신 모든 분들의 손도 일일이 잡아드리는 것 또한 잊지 않는다. 한번은 노인 복지 요양원에 가서 봉사를 할 때 였는데, 그 때는 각자 친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다과를 준비 해올 것을 미션으로 하고 본인이 사오기로 약속을 한 적이 있었다. 거의 초코파이나 개별 포장된 과자를 준비해오거나 포장을 해온 친구들의 센스^^ 그런데 한 친구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입맛을 고려하여 새우깡을 사왔는데... 아쉽게도 3봉지를 사오는 바람에 그냥 우리 예인친구들이 먹는 걸로 한 적도 있었다.





클래식 악기로 트로트를 연주하기란 말러교향곡을 연주하는 것 만큼 어려운 것 같다. 충만한 뽕필을 가지고 연주를 해야 하는데 해맑은 우리 아이들은 정박자로 소양강 처녀를 아주 모차르트처럼 연주해낸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은 어린 아이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해주었다는 것에 감동하셨다.



우리예인 챔버오케스트라는 다른 오케스트라보다 지도해주시는 선생이 많다. 카리스마로 아이들을 압도하는 단장 김누리 첼로선생님, 밝은 기운으로 아이들의 기분을 업 시켜주시는 이선영 바이올린선생님, 귀신 잡는 해병이 있다면 음정 잡는 채빛나라 비올라선생님, 우리 오케스트라 출신인 이호진 비올라 선생님 최지원 바이올린 선생님 이윤정 첼로 선생님 이렇게 탄탄하게 예인챔버를 지원해주는 선생님들이 있고, 늘 뒤에서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연주마다 오셔서 단원들과 선생님들까지 챙겨주시는 든든한 지원군, 제2의 연주자 예인챔버오케스트라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내가 맘껏 지휘를 한다. 이글을 빌어 선생님들, 학부모님, 단원들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다.
또한 좋은 장소에서 즐겁고 편안하게 연주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늘 친절하고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시는 의정부문화원 원장님, 사무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문화 발전 전략

의정부문화원 원장 조수기







수도권 지역은 물론 지방에서도 정보문화의 급격한 발달로 수준 높은 선진문화 공연이 영상매체로 전파되고 있어서 문화를 접하는 관객의 관람의식과 문화 이해도는 급상승 했다. 그러나 지방단위 문화축제 행사의 수준은 답보상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그 원인은 예산 부족으로 창작품이나 특색문화 상품의 개발이 곤란하고, 공연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지역축제 행사 때도 중앙무대의 주요 연예인이 초청 받아서 지방을 순회하며 무대를 독차지하는 관계로 지방문화예술인들은 자기지역 공연장 무대에 오르기도 하늘에 별 따기로 어렵다.

그런 관계로 작은무대를 꾸며서 지역축제를 한다고 해도 주민이 와주지 않게되어 관객이 없는 공연이 되다보니 점점 지역의 문화는 가뭄에 곡식이 시들어 가듯이 활짝 꽃피지 못하고 고사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문화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유교사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천대와 이해부족, 그리고 문화예술의 씨앗을 심고 키워내는데 필요한 경제권을 갖고 있는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미약한 것도 지역문화발전의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24일 박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대기업의 총수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오찬을 같이하며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여 기업이 문화예술 사업을 후원하는 메세나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이탈리아에서는 15세기부터 상업이나 금융업으로 거부(巨富)를 쌓은 대기업들이 학문과 예술활동을 적극 후원하는 사회환원투자로 르네상스시대를 열었고 찬란한 문화예술의 유적을 후손에 물려줌으로써 그 후손들이 오늘날 관광산업으로 먹고 산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한국메세나 협회가 설립되었고 2014년까지 20년간 약2조 6,950억원을 기업이 문화예술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재현된 1991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형편이 열악하다보니 기초자치단체(시.군)에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규모는 1%도 되지 않는다.

경기도의 경우 체육문화발전과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1980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별로 전국체전 종목을 직장팀으로 육성토록 권고하여 시.군별로 육상, 축구, 배구, 역도, 레슬링, 사이클팀 등을 육성한

결과 1990년부터 전국체전에서 서울의 아성을 넘어 종합우승을 독차지하는 성적을 계속 하고 있다. 아울러서 체육인들은 올림픽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거양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팀을 육성하고 지원하는곳은 별로 없고, 오직 너도 나도 복지시책에 무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당장 먹기는 사탕이 좋다고 하지만 오래도록 먹고살 양식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에 투자는 왜 아니하는지 묻고 싶다. 미국은 "아바타" 영화한편으로 우리나라 중형승용차 30만대를 판매한 수입을 올렸고, 영국의 소설가인 존 로날드 로웰 톨킨의 "반지의 제왕"은 책과 드라마 영화로 제작되어 100억달러의 수익을 올린 사실은 문화예술이 정말 굴뚝 없는 산업으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창조경제의 각광받는 상품이 된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지역에 소재한 기업과 금융기관, 대학 등에서도 지방문화사업 육성을 위한 메세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그다음으로 지역단위 공연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시설은 물론 종교기관의 품위 있고 편안한 시설을 문화예술 공연에 대여해 주는 전도사업이 필요하다. 즉 유럽국가들은 훌륭한 종교시설에서 음악회도 열고 미술전시회, 국제학술세미나들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향수 기회 제공과 종교시설의 편익성 홍보로 종교인구 저변 확대에도 활용하고 있다.
지방의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인의 규모가 작고 자체사업비가 부족해서 지역별 문화축제 행사에서 특색작품이나 창작품을 제작하여 무대에 올릴 수 없어서 같은작품의 재탕으로 지역주민에게 외면 당하는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근시군과 문화예술 작품공연을 품앗이 공연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

의정부시의 경우 인접한 양주, 남양주, 구리, 포천, 고양, 파주와 교류하고 그 폭을 넓여서 경기도내 문화원간 문화예술공연을 교체순회하는 "문화예술 연희활동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상호교류를 정례화 하자.
그 다음으로 지역단위 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 각종 장학금 운영단체는 많은데 천편일률적으로 공부 잘하는 학생위주의 장학금 지급 방법을 개설하여 문화예술 특기생에게 장학금을 주어 지방문화예술인을 키워서 큰 재목을 만들자는 것이다. 의정부의 비보이팀이 세계에서 최고의 비보이팀인 것처럼 내일의 K팝 아이돌가수와 제2의 퓨전MC를 장학금으로 키우자는 것이다.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각 지방에서도 문화예술 상품의 특화사업화 하여 성공한 자치단체가 몇 곳있다.
부산의 국제영화제, 광주 비엔 날레, 보령의 머드축제, 함평나비축제, 여주.이천의 도자기 축제등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문화상품화 하여 점차 토착화에 성공하고 있는 실례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지역의 전통문화 씨앗이 현대문화를 접목하여 의정부문화상품을 개발하는데 각급기관과 기업, 문화예술단체는 물론 관객이요 고객인 시민이 다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다.

정문부묘역 활성화를 위한 연구

최영희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1. 들어가며



〈 정문부 사당 전경 〉

북관대첩비의 주인공 정문부(鄭文孚)는 임진왜란 때 혁혁한 전공을 세운 민족적 영웅이지만, 수난의 역사에 가려져 살아생전에 그 공적을 인정받지 못한 불우한 의병장이었다.

함경도 관찰사 윤탁연의 모함을 받고 의병장의 전공을 빼앗긴 일은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정문부는 박홍구 역모사건에 선봉장으로 추대 받았다는 연루설로 옥고를 치렀으나,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건이어서 무죄로 종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관들은 정문부가 창원부사 근무당시에 지은 '초 회왕(楚 懷王)'이란 영사시(詠史詩)가 인조를 빗댄 시(詩)라고 우기며 풀어주지 않았다.

그로인해 정문부는 혹독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1624년 11월, 60세의 나이로 옥사한다.

그는 사후 40년이 지난 후에 신원이 회복되고, 90년이 지난 후에 충의공(忠義公)이란 시호(諡號)를 받게 되었다. 또한 임진왜란 일등공신 좌찬성으로 추증되고, 부조전(不祧典)을 윤허 받게 되었다.

1709년(숙종 35)에는, 임란 당시 의병장 정문부와 함께 활약한 함경도 의병들의 전승을 기리는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가 함경도민의 염원과 모금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러일전쟁 전리품으로 일본에 반출되어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된 채 있다가, 1978년 최서면이 대첩비 존재를 확인하고 언론에 발표한 후에,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반출된 지 100년만인 2005년 10월에야 반환되었다.

지금은 북관대첩비 반환 조건대로 원본은 북한으로 전해지고, 복제비가 정문부묘역과 국내 여러 곳에 세워졌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정문부에 대한 임진왜란 당시의 공적이 미미하고, 이제는 북관대첩비 반환사실도 우리 뇌리에서 잊혀져 가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북관대첩비에 얽힌 내용과 정문부선생의 불우한 생애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북관대첩비가 임진왜란이 백년이나 지난 후에 조정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모금으로 함경도 지역에 세워지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일본군이 왜 많은 비(碑) 중에서 유독 북관대첩비를 강탈 해 갔는지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임진왜란 당시 의병운동사의 귀중한 자료가 되는 북관대첩비와 흩어져 있는 정문부에 대한 자료를 한곳에 모아 정리 하고자 한다.

2. 정문부 선생 이야기

1. 생애 및 활동상황

정문부의 본관은 해주, 자는 자허(子虛), 호는 농포(農圃),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정문부는 1565년(명종 20)에 서울 남부 반송방(盤松坊) 남소동(南小洞)에서 태어났다. 5세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7세에는 5언고시(古詩)를 짓고, 8세에 '초월(初月)'이라는 시를 지었다.

다음 글은 농포가 여덟 살에 지었다는 〈초월(初月)〉이란 시(詩)다.

誰斲崑山玉, 그 누가 곤륜산의 옥을 쪼아다
磨成織女梳, 직녀의 머리빗을 만들었던가.
牽牛離別後, 견우와 이별한 그날 이후로
愁擲碧空虛, 시름에 겨워 푸른 허공에 던져버렸네.

이 시는 초승달 모양을 직녀의 머리빗으로 비유한 절묘한 묘사와 맑은 시심이 나중에 까지 많은 사람들의 입에 널리 회자되었다고 한다.

소년 정문부의 성품은 호방하여 편을 짜서 전쟁놀이를 하면 대장으로 호령을 하였고, 홍인지문 밖에서 범잡는 구경을 하던 중에도 도망가는 일이 없었다한다. 정문부는 1585년(선조 18) 생원진사시에 합격하고, 1588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해 한성부 참군이 되었다. 이듬해 홍문관수찬을 거쳐 사간원정언 겸 중학교수(中學敎授)를 역임하고, 1590년 사헌부지평(정5품)으로 지제교를 겸했다.

중앙정부의 분위기가 싫어 정5품인 사헌부 지평을 버리고, 자진 강등하여 1591년(27세)에 지방직인 정6품 함경북도 병마평사로 전임하였다. 병마평사란 함경도에만 있는 병사(兵使)의 보좌관이지만, 북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는 학교통솔과 민심순화 임무를 맡은 문관역이었다. 그리하여 함경도를 낙후된 변방으로 멸시하는 종래의 엄격한 지배복종식 교화방침을 지양하고, 국토로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함경의 민도가 낮은 원인이 경지역에 대한 중앙의 시혜부족에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게 민간지원 확대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낙제와 퇴학을 완화하고 과거응시를 장려하며 학생군역을 면제하고, 지방민의 지방관 임용을 개방하는 등의 인정(仁政)을 베풀고, 촉룡서당(燭龍書堂)이라는 서민학교와 길주에 경학진흥을 위한 명륜당을 신설하여 감동과 존경을 받았다. 이는 강자엔 엄격하고 약자에겐 어진 정문부의 천성(天性)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듬해인 1592년 4월 정문부는 행영(行營)에서 임진왜란을 당하게 된다. 가토 기요마사의 왜군 22,800명이 부산, 경주, 영천, 충주, 용인, 한양을 지나 6월에는 함경도를 침공해 왔다. 함경도 관군은 6월에는 철령에서 겁을 먹고 미리 도망가고, 7월에는 해정창(海汀倉)에서 한판에 대패하고 무너지고 말았다. 정문부도 이때 조총에 맞아 산속에 피신하여 나물먹고 지낸 적도 있었다 한다. 그러던 중 평소에 명성을 듣고 있던 선비 최배천(崔配天), 지달원(池達源) 등을 만나, 경성 유생 이붕수(李鵬壽)의 집으로 옮겨 의병봉기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의병장 정문부는 현직 평사로서 감사의 막하라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어 의병을 운영하는데 평탄치만은 않았다. 감사의 시기와 모략을 받았으며 행재(行在)에 그릇된 보고를 함으로써 전공(戰功)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했다. 공(功)을 세운 휘하 의병들 또한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선생은 이에 초연하였으며 고을살이를 하면서 백성을 위해 치안과 부역을 공평히 하는 데에만 힘썼다.

임진왜란 당시 삼남지방이나 다른 지역의 의병이 유생(儒生)이었던데 반해, 관북지방의 의병은 첨사나 만호 등 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으며, 의병장을 위시해서 그 참모들이 전직 관료보다 현지인이 많이 참여하였다는 것이 특색이다. 이는 관군의 기능이 마비되었음을 뜻하며, 그들이 의병에 의해 흡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문부선생은 당초부터 공명심(公明心)을 가지고 창의(倡義)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난관을 물리치고 왜적을 격퇴한 것이니, 탐학(貪虐)하고 교활한 윤탁연과 같은 자에게 아부하여 출세코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논어(論語)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다고해서 서운해 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人不知而不溫不亦君子乎」' 라는 구절이야말로 정문부가 지닌 처세관이었다. 이 강직한 면모는 북도(北道)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일관된 철학이었다.

이후 정문부는 전쟁이 끝난 뒤 전공(戰功)은 인정받지 못했지만, 빼어난 능력은 인정받아서 이후 중앙직을 수행하여 1601년(37세)에 예조참판(종2품)을 지낸 후, 1603년에 중추부 동지(同知)에 임명됐다.

다음해인 1604년(40세) 8월 부친 판서공의 상(喪)을 당하여 양주(현 의정부) 송산 어룡동에 장사지냈다. 이후 3년 동안 송산 묘소 아래 여막살이를 하며 지나치게 슬퍼하였다. 늘 자제들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다시 매를 맞고자 한들 맞을 데가 있겠느냐?'하고, 지엄했던 선친(先親)을 추모했는데, 그 후부터 무덤이 있는 산의 봉우리를 효자봉이라 칭하게 되었다.

1610년(46세)에 사은부사(謝恩副使)로 명나라를 다녀왔으며, 1611년(47세) 6월에 남원부사에 임명되었다. 1612년(48세)에 형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아니하고, 외읍을 청하여 어머님 봉양을 하였다. 그때 광해군이 새로 즉위하고 북인세력이 한창이었다.

3월에 다시 길주목사가 되었으나, 49세인 이듬해 봄에 길주에서 관직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51세 6월에 부총관에 임명되고, 곧 이어 병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취임하지 않고, 조정에서 부름이 있어도 나가지 않았다. 그 후 1617년(53세) 4월에 전직(前職)으로 부임하라는 조정의 부름이 있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6월에 폐모하자는 조정의 의논에 참여하지 않았다. 1618년(54세) 9월에 창원부사에 보직(補職)되어 10월에 부임하였다. 공무의 여가에 역사를 읊은 절귀시 10수를 지었다.

그중의 한 수가 "초 회왕(楚 懷王)"이라는 시다. 이시(詩)가 뒤에 정문부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될 줄을 그 누가 알았겠는가.

1619년 55세인 정문부가 진주를 지나다가 촉석루(矗石樓)라는 시를 읊었다. 진주가 임진(壬辰, 1592) 계사(癸巳) 두 해의 병화를 가장 참혹하게 입은 곳이라 정문부는 임란 당시와 지금 당시를 생각하여 시를 지어 탄식했다. 그 시는 지금 금강변 촉석루에 액자로 걸려있다.

광해조가 지나고 1623년 인조반정의 해가 되자, 조정에서는 광해군 때에 배척받은 사람이라고 하여 정문부를 원수(元帥) 물망에 올려 등용하려 하였다. 그러나 정문부는 편모봉양을 위하여 지방의 원을 희망하여 1623년(59세) 4월에 전주부윤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재임 3개월 만에 모친상(喪)을 당하자 사임하고, 양주(현 의정부) 송산에 올라와 3년의 시묘(侍墓)살이를 하였다. 이때 너무나 슬퍼한 끝에 큰 종기가 나서 오랫동안 아물지 않았다.

상중인 다음 해 1624년(인조 2년, 60세) 정월에 이괄(李适)이 모반하자, 이를 토벌할 부총관(정2품)에 임명되었으나 선생은 병이 심하여 나가지 못하였다. 임금이 공주로 거동하며 선생에게 나와 주기를 명령하므로, 이때도 정문부는 왕의 행차를 용인까지 쫓아가 알현하고, 등창으로 운신이 어렵다며 벼슬을 사양하고 이를 허락받고 돌아왔다. 그 뒤 선생은 모친상 시묘살이를 하던 중에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한다.

관찰사 윤탁연의 모함을 받고 전공을 빼앗긴 일은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인조반정(仁祖反正)에 반대하고 광해군(光海君)을 복위하려는 역모에 가담했다는 죄목을 뒤집어쓰고 형벌을 받다가 1624년 11월 60세의 나이로 옥사한다. 농포 정문부의 처세 철학은, 조정이 맑으면 나가서 벼슬을 하고 백성을 다스릴 때는 청렴과 애민으로 성의를 다하며, 외적이 쳐들어와 나라가 위태하면 나아가 싸우고 불의를 보면 용서함이 없으며 조정이 혼탁하면 벼슬을 그만두고 은둔하는 것이었다.

2. 역모사건 및 시화(詩禍)에 휘말리다.

임란 후 '선무원종 1등공신'에 오르고 영흥부사직을 받았던 정문부가 그후 불우한 죽음을 당한 것은 모함 때문이었다. 그 하나는 박홍구역모사건 연루혐의이며, 다른 하나는 '초 회왕'을 읊은 시에서 연유된 시화사건이다. 임란 후 정문부는 1601년(37세)에 예조참판을 지내고, 1610년(46세)에 사은부사가 되어 북경에 다녀온다. 1612년에 형조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1618년에 지방관인 창원부사에 부임하였다. 여기서 여가에 서사시 10수를 지었다. 그 중의 한수는 '촉석루'라는 시로 지금 촉석루에 액자로 걸려있다. 또 한수는 '초 회왕'이라는 시다. 이 시가 뒤에 정문부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될 줄을 그 누가 알았겠는가.

1623년 반정으로 인조가 즉위하자 원수(元帥) 물망에 오르는 등 등용하려 했으나 정문부는 편모(偏母) 봉양을 위하여 또다시 지방 원을 희망하여 59세에 전주부윤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재임 3개월 만에 모친상을 당하자 사임하고, 어머니의 관을 모시고 의정부 송산에 올라와 3년의 시묘(侍墓)살이를 하였다. 상(喪)중인 다음 해 인조2년(1624) 정월에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토벌할 부총관으로 기용되었으나 왕의 행차를 용인(龍仁)까지 쫓아가 알현하고 등창으로 운신이 어렵다며 사양하고 이를 허락 받고 돌아왔다. 그러나 어머니 상중에 등창을 앓으면서 시묘살이 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했다. 그 해 10월, 박홍구역모사건 연루혐의로 투옥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1]

---

1) 박홍구 역모사건 : 의관(醫官) 이이(李怡),김인(金仁),심일민(沈逸民) 등이 그와 그의 조카 윤장(允章) 등이 광해군을 태상왕(太上王)으로 모시고 인성군(仁城君)을 추대하려 한다고 밀고함으로써 제포되어 심문을 받던 중 인조의 명으로 사사(賜死)되었다. 이때 정문부도 같이 무고되어 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정문부는 1691년(숙종 17)에 신원(伸寃 : 억울하게 입은 죄를 풀어 줌)되었다.

이 사건은 인조반정 다음해에 반정 저항세력의 재혁명 음모사건으로 고하는 자가 있어 모의단계에서 발각된 사건이었다.

인조 2년 장만이 조직한 반란 정탐조직의 기찰에 걸려든 박윤장이 남이흥에게 광해군 재추대의 움직임을 발설하였다. 임란 이후의 사회불안과 이괄의 난이 가져온 혼란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정부 음모사건의 여파는 클 수밖에 없었고, 아직도 정권의 위상을 확고히 하지 못한 인조반정 주체들에게 있어서 이는 엄청난 위기의식을 불러와 관련자 모두를 엄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추국청(推鞫廳)의 '박홍구 옥사문서'라는 기록에 의하면, 애초에 정문부는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한다. 박홍구일당의 역모 사건 문초 중에 불거진 일이 단초가 되어 정문부도 체포되어 함께 국문을 당한 것이다. 내용인즉 역모도당들은 그들끼리 문부겸전을 이유로 정문부를 그들 반군의 선봉장으로 추대하기로 의논을 정하고, 그 임무를 성생의 종기치료를 위하여 선생의 집에 출입하던 침의(鍼醫) 이대검에게 선생의 허락을 받는 일을 맡겼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먼저 인조 어전에서 고변자 증언이 열리고 추국 왕명과 국문 조칙(詔勅)이 내려졌다. 추국청 정국 관원도 정해졌다. 여러 날의 조사와 문초를 거쳐나갔는데, 11월 11일부터 9일간 진행된 이 정국에서 일부는 무혐의로 석방도 되었지만, 여럿이 극형을 당했다.

알고 있듯이 능지처참(陵遲處斬)은 사지(四肢)를 찢는 죽임이요, 자진(自盡)은 독약이나 칼로 스스로 죽게 하는 형이며, 물고(物故)는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형벌이다. 이때 정문부도 9일간 신장(訊杖, 몽둥이 곤장)30대씩 5회, 압슬(壓膝)3회라는 모진 고문을 받았다. 압슬이란 무릎 밑에 사금파리를 깔고 무릎위에 무거운 널판지와 돌을 놓는 중고문이다. 이런 모진 고문 끝에 반역자 중 유일한 접촉자인 침의사 이대검을 대질한 결과, 이대검은 고문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어렵고 겁나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였고, 그래서 이대검과 정문부간의 이에 관한 대화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문부의역모 연루가 없고 무고함이 밝혀진 것이다. 그리하여 11월 17일의 어전회의에서 좌의정 윤방이 "정문부는 역모의 선봉장 제의에 응한 흔적이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로서 이 역모사건은 종결되었다.

그 때 만약 선생이 매를 못 견디거나 심약하여 사실여부를 떠나 굴복함으로서 대역죄를 뒤집어썼더라면, 대명률(大明律)에 따라 일족 또는 직계자손이 몰살당하고 안식구들은 노비가 되는 비운을 맞았을 것이었다. 반역죄가 확정되면 능지 처참형에 처해지고, 적어도 두 아들도 연좌(連坐)되어 화를 당하고 가문은 폐족(廢族)되고 대가 끊어졌을 것이다. 억울하고 원통한 날벼락이었으나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2]

북관대첩을 승리로 이끈 정문부는 혹독한 견제를 받았다. 뚜렷한 혐의는 없었지만 오래전 그가 쓴 초회왕(楚懷王)이란 시가 문제가 되었다.

---

2) 후손인 정태수의 글「가계사 기행문」에서 옮김.

초 회왕은 중국 초나라 항우가 추대한 인물이었는데, 나중에 항우에 의해 살해된 왕이다. 이는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 회왕'이란 시의 작시의도가 인조 비방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원래 이 시는 정문부가 1618년(광해군 10) 창원부사로 있을 때 공무의 여가에 역사를 읊은 10수 중 하나인 '초 회왕(楚 懷王)'에 대한 칠언시였다. 이는 심심풀이로 읊어본 것으로, 한때 여러 가지 원고 속에 끼여 있다가 모친 상중(喪中)에 휴지들과 함께 섞여 벽에 초지(初紙)로 발라져 있었다.

선생의 장남 정대영의 동서(익성군의 사위)인 최내길(崔來吉, 최명길의 아우)이 문상 와서 기다리던 중, 벽에 바른 종이에서 '초 회왕' 시를 보고 가서 퍼뜨린 것이다. 이 영사시의 창작과 1623년 인조반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만일 이 시가 비유의 뜻을 지녔더라도 그 비유의 대상은 오히려 광해군이 되면 모를까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은 인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인조를 풍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빙자하여 정문부를 무고한 것은 역사에 반하는 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증거조차 확실하지 않은 사안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하지 않고, 이미 60세가 넘은 노인으로 심한 종기를 앓고 있는 환자인 임란공신(壬亂功臣)을, 혹형으로 고문한 처사는 이후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왜적을 물리치고 함경도 땅을 평정하여 회복한 원로의 한 사람을, 사감어린 고변과 문제의 시를 지은 시기 등의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심한 고문으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3]

조선시대 임진왜란의 승리는 관군의 힘이라기보다는 의병의 힘이 상당히 컸다. 그런데 그런 것은 조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관군들이 패퇴를 거듭하는데, 민간의 의병들이 승승장구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군들의 무능함을 폭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의병장에 대한 대우가 아주 소홀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문제의 '초 회왕'이란 칠언절구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자.

楚 懷王 (초 회왕)

楚地靑山 有九疑,	초나라 청산에 구의산이 있는데
懷王何事 信張儀,	회왕은 어찌하여 장의를 믿었던가.
商於六百 終難割,	상나라 육백리 땅 떼어주기 어려웠지.
湘水空流 不盡悲,	상강만 덧없이 흘러 슬프기 그지없네.
楚有三戶 亦秦亡,	3호 남은 초나라가 진나라를 없앴으니
未必南公 說得當,	남공의 이간질설득까지 굳이 필요했을까
一入武關 民望絕,	한번 무관 들어가자 백성희망 끊겼는데
孱孫何事 又懷王,	잔약한 손자 세워 어찌 회왕이라 했던가.

3) 후손 정태수의 「가족사 기행문」에서 그는 이 사실을 담담히 서술하고 있다.

「초나라가 비록 진나라에 망하여 비록 삼호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진나라도 역시 망하고 말았으니, 진나라의 설객 장의(張儀)가 남쪽으로 초에 와서 거짓으로 설득시켜 600리 땅을 주어 제나라와 절교시키고, 드디어 초왕은 재위 30년 만에 죽고 말았으며 이런 일이 없다하여도 진은 시황제 통일 이후 18년만에 무관(武關)에서 패하였으니, 이미 민심을 잃은 것 아닌가. 잔약한 손자 심(心)을 세워 다시 그를 초 회왕 의제라 하고 받들어 섬기니 이 무슨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뜻이다. 이렇게 오래전 역사 한 토막을 읊어본 것뿐인데 간악한 인간들은 이에 트집을 잡고 늘어졌던 것이다.

농포집(農圃集)에 의하면, 이 시는 창원부사 당시에 심심풀이로 지은 10수중의 한 수이다. 인조반정 5년 전에 지은 영사시(詠史詩)다. 그렇다면 인조가 즉위하기 5년 전이니 인조를 비방할 수 없는 시다. 5년 후에 일어날 인조반정을 미리 알고 비방시를 지었단 말인가.

또한 그 내용이 인조에 딱 들어맞는 것인가도 문제이다. 이 시는 속이고 먹히고 하는 중국 전국시대 중원의 덧없는 역사를 읊은 영사시(詠史詩, 역사를 읊은 시)이다. 그 내용 중 마지막 부분, 〈孱孫 : 잔약한 손자〉라는 부분이 인조를 빗댄 비방의 시라고 몰아붙여서, 걸맞지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정문부를 해칠 목적에 맞춘 말일 뿐이다. 정문부에 대한 인조의 어심(御心)도 의구심으로 흐려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정문부에게 불리한 사안에 쉽게 재결할 터전이 닦여져 있었다. 문무겸전을 믿고 임진왜란 의병장을 떠올려 원수(元帥)자리 주려 해도 거절하고, 인조에 저항하는 이괄의 난 평정에 부총관으로 도와 달라 하면 칭병(稱病)하여 거절하였다. 전주부윤 주어도 어머니 당상(當喪)을 이유로 몇 달 만에 그만 두고, 인조를 해치려고 음모하던 박홍구 반역세력들은 혁명 선봉장으로 정문부를 추대하고, 보좌하는 대관들로 부터는 정문부가 인조반정 거역세력 같다고 헐뜯고 하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남들이 말하는 정문부의 성품을 기록에 따라 한 번 보기로 하자. 대인관계의 교훈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충공(文忠公)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는 "농포는 인격과 능력은 참 높으나 강직함이 너무 지나쳐 한이다"라 하였고, 명종의 수렴청정(垂簾聽政)하는 문정왕후와 이종남매간인, 정문부의 5촌 조카 병조참판 정조(鄭造)가 공을 찾아와 대화를 하고자 하나, 그 권력남용을 경계하여 집안사람이라도 혹은 자는 척 혹은 취한 척, 대면을 피하였다. 또 이웃에 사는 막강한 권신 이이첨(李爾瞻)이 공을 사모하여 사귀고자 해도 만나주지를 않았다. 농포집에서는 선생을 맑고 검소하며 이익과 재물을 탐하는 자를 보면 더럽다며 침을 뱉는다하였고, 벼슬에서 돌아올 때는 행장이 말쑥하다고 썼으며, 아들에게 관용(官用)의 말(馬)을 사사로이 타지마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크게 보아 꼿꼿한 선비의 표상이 아니었나 생각된다.또한 정문부가 모진 매타작과 압슬(壓膝)의 고통을 참으며 극한상황으로 내몰린 상황에서도, 초지일관 무죄 사실을 굽히지 않고 버틴 까닭은 명예사수와 거짓과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정문부의 꼿꼿한 성품도 작용했겠지만, 죄를 둘러쓸 경우 자손과 일족이 당할 위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고뇌에 찬 항거였을 것이다. 그 고뇌에 대하여 지금에 와서도 후대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4] 고 후손인 정태수는 서술하고 있다.

---

4) 후손인 정태수의 글 「가계사 기행문 4」에서 옮김.

3. 후손들, 유언따라 진주(晉州)정착

농포 선생이 시화(詩禍, 영사시)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물고(物故)를 당하자, 아무 잘못 없이 혹독한 태형으로 만신창이가 된 선생의 시신을 수습하여 의정부 송산(松山)의 부친 판서공(判書公) 묘 앞에 매장하였다. 이듬해 1625년(인조 3) 농포 선생의 아우 정문익(鄭文益)과 두 아들 정대영(鄭大榮), 정대륭(鄭大隆)이 선생의 유명(遺命, 유언)대로, "벼슬 하지 말고 진주에 내려가 살아라" 라는 지침에 따라, 상복을 입은 채로 처자들을 데리고 한 달 너머 걸어서, 진주로 남행해 내려가 자리를 잡았다.

농포선생의 큰아들 대영은 생원시에 합격하고 대과를 준비 중에 있는 당시 40세의 중견 가장으로, 일생일대의 낭패감을 안고 숙인(淑人)이씨와 아들 4형제(15세, 12세, 11세, 3세)를 데리고 달포 너머 걸어서 진주에 도착하였다. 숙인(淑人)이씨는 선조대왕의 조카 익성군(益城君 李亨齡)의 따님으로 당시 36세였고, 처음엔 비봉산 아래 봉곡동으로 이사했다가 후대에 까꼬실로 옮겨갔다. 내려온 3인 가족 중에서 장남 정대영(鄭大榮)의 후대들이 정착하여 집성촌을 이룬 곳이 까꼬실(진주 귀곡리)마을이다.

농포선생의 작은 아들 정대륭(鄭大隆)은 당시 27세로, 숙부인(淑夫人) 해주 오씨와 아들 3형제(10세, 6세, 2세)를 데리고 내려오고, 또 농포선생의 막내아우 정대익(鄭文益, 당시 57세)과 단인(端人) 수원최씨 내외분은 진주 옥봉동에 이웃하여 살다가, 후대에 각각 반성 용암과 산청 삼장으로 옮겨갔다. 실로 대가족의 자진 유배라 하겠다. 당시 대역죄인은 3족을 멸하였으나,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농포선생의 박홍구 역모사건 혐의는 조사 결과 완전히 무죄로 귀결되었고, '초 회왕'이라는 영사시가 인조를 비방하는 시이냐 아니냐는 결말을 내지 못하고 물고를 내고 말았으니, 아무리 연좌죄(連坐罪) 시대지만 그 자손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대로 한양에 눌러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후손들이 정문부의 옥중유언(獄中遺言)에 순종하여 진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농포집에서 선생이 창원부사로 있을 때 진주를 둘러보고 풍토가 순박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며 사랑했던 바, 다시는 벼슬하지 말고 진주에 터전을 잡고 살도록 하라.'는 유언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미 옥중 고통을 포함하여 살아온 60평생을 결산해 보고, 또 자손들이 평온한 일상을 그려보면서, 극심한 생존경쟁과 당쟁으로 헐뜯기고 모함 받는 한양을 떠나, 자연을 벗 삼아 농사짓고 자식 많이 낳아 편히 살라는 방향제시가 아니었나한다. 선생의 벼슬 일생을 살펴보면 고관직이라도 중앙을 언제나 사양하고 지방직을 전전한 것만 봐도 평소의 인생관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처음 후손들이 정착한 까꼬실은 수몰되기 전 300년간 남들이 부러워한 부촌이었다. 토지는 넓고 비옥하여 농사짓고 살기에 불편함이 없었다. 특히 녹두섬의 고구마와 경호강, 덕천강 두 강에 떼지어 다니는 은어와 황어가 유명하였다. 까꼬실 마을은 경호강과 덕천강 두 강이 동서로 만나서 로터리를 이른 삼각주이다. 산과 강과 들을 겸비한 이 명당은 이제 진양호로 변했고, 까꼬실은 수몰되어 사라졌다. 그 후 후손은 진주 이반성면 용암으로 옮겨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정문부선생의 신원(伸寃) 후, 조정이 내린 부조묘(不祧廟)와 유가의 표상인 가호서원(佳湖書院)도 세웠다. 그러나 1962년 진양호 조성사업으로 동네와 들판이 지금은 푸른 호수와 무인도로 변한 것이다. 까꼬실(귀곡동)에 있던 충의사는 박정희 대통령 때 정문부장군의 공을 기려 진주시 까꼬실(귀곡동)에 세워졌으며, 1970년 가호서원을 세우면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충의사'라는 한글 편액을 받았다.

그 후 남강댐 수위상승공사로 인하여 이곳 이반성면 용암리의 장소로 이건하였다. 진주 까꼬실(귀곡동)에는 부조묘 사당만 있었는데, 부조묘는 나라에 공훈이 있는 분의 신위(身位)를 옮기지 않고 왕의 허락을 받아 신주(神主)를 모시는 사당이다. 지금 충의사 경내에는 장판각, 유물전시관, 가호서원, 사적비, 북관대첩비 복제본 등이 있다.

4. 폐족(廢族)에서 공신가(功臣家)로 현창되다

농포선생이 시화사건(詩禍事件)으로 가신 후, 국가적으로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6) 두 오랑캐 난을 겪고, 당쟁은 더욱 격화되어 내우외환이 겹쳤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가로채이고 묻혀졌던 농포선생의 구국안민의 공훈은 서서히 밝혀지게 되고 현창되었다. 먼저 1664년(현종5) 후임 북평사 이식(李植)과 그 아들 이단하(李端夏)에 의하여 저술된 『북관지(北關誌)』의 완성으로 함경도에서의 '삼란평정(三亂平定)'의 공적이 문서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삼란평정'이란 세 가지 난리를 다 다스렸다는 것으로, 첫째는 가토 기요마사의 2만여 왜병이 남쪽에서 관북에 쳐들어온 임란, 둘째는 오랫동안 이반(離叛)되어 쌓여온 관북의 민심이 국세필, 국경인, 정말수 등의 민란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난 부역반란(附逆反亂), 셋째는 이러한 틈을 탄 북쪽 오랑캐가 무리지어 수없이 국경을 침범하여 양민을 납치하고 재물을 약탈한 오랑캐란(亂)을 것을 말한다.

당시 관군과 치안과 민심이 무너진 함경도는 이러한 안팎의 '삼란(三亂)'을 오직 의병이 도맡아 담당할 수밖에 없는 특이한 여건 하에 놓였던 것이었다. 오직 왜군만 상대하는 다른 지방 의병과 달리, 정문부 의병장은 왜란과 내란에 오랑캐까지, 이렇게 '3란'을 평정한 것이 특이하다 하겠다. 농포선생이 가신 후에, 먼저 억울하게 누명쓴 사실이 알려지고 명예 회복된 후, 묻히고 가로채인 훈공이 잇따라 들어나 현창되었다.

〈사후15년(1639)〉 길주목사 최유해(崔有海)가 의병장 자손의 상벌등용을 분명히 할 것을 상주하여 등용령을 내리게 하였다.

〈사후 41년(1664)〉 이단하가 북평사가 되어 선생의 공렬(功烈)을 채집하여 감사 민정중과 함께 사당 세울 것을 발의하다.

〈사후 42년(1665)〉 백성들이 함경도 경성 어랑리(漁郎里)에 선생의 사당을 모시고, 북관대첩의 네 장수 이붕수, 최배천, 지달원, 강문우를 옆에 배향하였다. 현종6년에는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의 상소로 억울한 시화(詩禍)사건 누명과 원통함을 풀어주는 신원(伸寃, 1665)이 이루어지고 자손에게는 등용문이 열리게 되었다.

〈사후 43년(1666)〉 이단하(李端夏)가 다시 애써 영의정 민정중(閔鼎重)의 도움을 받아, 1667년 정월에 농포공에게 의정부 좌찬성 증직(贈職)을 제수하여 명예를 회복하였다. 이 증직은 문관과 무관을 겸한 추대직으로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 춘추관 성균관사, 홍문관 대제학, 오위도총부 도총관' 이라는 긴 벼슬이름이다.

〈사후 70년(1694)〉 지재(趾齋) 민진후(閔鎭厚)가 장계를 올려 그 자손들을 등용할 것을 청하여 위에서 허락하였다.

〈사후 80년(1704)〉 증손 정삼(鄭杉)이 시호(諡號) 요청 상소를 올리다.

〈사후 84년(1708)〉 사당에 현충사(顯忠祠)라는 사액이 내렸다. 10월에 길주 임명(臨溟)에 민간 주도의 북관대첩비를 세우다.

〈사후 90년(1714)〉 10년 전의 상소가 주효하여 농포공이 '충의(忠毅)'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다.

〈사후124년(1748)〉 3월에 서울 소격동 셋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시호(諡號)를 하사한 교지를 맞이하였다.

〈사후135년(1759)〉 민우수(閔遇洙)가 서문 짓고 오혁(吳奕)이 출자하여 전5권의 『농포집(農圃集)』이 완성되다.

〈사후165년(1789)〉 11월에 5대손 정근(鄭瑾)의 상소로 후손에게 부조전(不祧典)이 내렸다.

〈사후167년(1791)〉 대제학 황경원(黃景源)이 지은 신도비명이 완성되었다.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농포 정문부선생의 선양사업이 진행되었다.

〈사후353년(1977)〉 11대손 정태진의 노력으로 의정부 송산(용현동)의 농포공 묘역이 경기도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문화재 지정비를 묘역 입구에 세웠다.

〈사후353년(1977)〉 진주 진양호 조성으로 일족이 솔권(率眷)하고 종가가 까꼬실[귀곡리]에서 이반성면 용암리로 옮기자, 11대손 정한재(鄭翰載)와 종손[鄭奎燮]주도로 부조전을 이전하고, 공비(公費)로 충의사를 세워, 박정희대통령 친필사액을 걸고 유림의 춘향제를 올렸다.

〈사후378년(2002)〉 후손 정태수(11대손)가 공비보조를 받아 의정부 송산의 묘전사당 충덕사(忠德祠)를 신축하고 복지문(復地門)과 홍살문을 세웠다. 또한 정부지정의 충의공 영정(국가영정 제77호)을 제작하여 닫집에 걸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한편, 선산 조성 후 500년 만에 재실 송산재(松山齋)를 지었다. 이은상(李殷相)선생이 국역한「국역농포집(國譯農圃集)」을, 이원순(李元淳)당시 국사편찬위원장의 서문으로 간행했다. 이후 해마다 전국유림의 추향제(秋享祭)를 올리고 축제를 열고 있다. 의정부 송산(현 용현동)에 사당 충덕사가 들어선 후, 시호를 따서 인근 도로와 학교에 충의로(忠毅路)와 충의중학교가 명명되고, 정문부선생의 시묘살이가 이 지역 전설이 되어 그 묘가 있는 산봉우리를 효자봉이라 부르고, 효자 초등학교, 효자중학교, 효자고등학교가 명명되어 길이 이어질 것이다.

5. 정문부 묘역 및 영정



〈 정문부 묘역 〉

1) 정문부 묘역 (경기도기념물 제37호)

선생의 묘역은 고즈넉한 유적의 모습이 아니라 산업단지 한 가운데, 효자봉 산자락의 팔다리가 다 잘린 모습으로 섬처럼 동그마니 떠있는 듯하다. 선생의 봉분은 단분(單墳)이며 부인 고령신씨(高靈申氏)와의 합장묘이다.

봉분 앞에 묘비와 상석(床石) · 향로석(香爐石)이 있고, 그 앞쪽 좌우로 1쌍의 문인석이 배치되어 있다. 묘역의 동남쪽 50m 지점 낮은 곳에 신도비(神道碑)[5] 가 있는데, 1665년(현종 6)에 세웠던 것을 1861년(철종 12)에 9대손 인원(麟元)이 추가로 기록하여 다시 세운 것이다. 신도비에는 임진왜란 때 장군이 의병을 이끌고 왜적을 무찌른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최근에는 북관대첩비 복제비가 경내에 세워져 방문객과 학생들의 관람지가 되었다. 북관대첩비의 일부분을 소개하면, '임진왜란에 힘써 싸워 이겨 적을 크게 물리친 것으로 이순신의 한산대첩이 있고, 권율의 행주대첩이 있으며 이월천의 연안대첩이 있어 사람들이 이들을 칭송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지위가 있어 말과 부역과 군졸들을 낼 수 있음에 힘입은 것이다.여기 고단하고 미약한데서 일어나 적들을 대파한 자들이 있어 비를 세워 후세에 남기노라.' 란 구절이 보인다. 현재 북관대첩비 원본은 개성을 경유하여 함경도 원래 비석이 있던 자리로 옮겨져 있다. 이곳에는 정문부 묘앞에서 고유제를 지내고 복제비를 세웠다.

의정부 송산의 묘역은 11대손 정태진(鄭泰辰)의 노력으로 경기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고, 문화재 지정비를 묘역 앞에 세웠다. 또한 후손 정태수가 송산 종중 소임을 맡아 사당 충덕사(忠德祠, 2002)를 짓고, 복지문(復地門)을 열고 홍살문을 세웠다. 또 충의공 영정을 닫집에 걸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한편, 종재(宗財)를 들여 재실 송산재(松山齋)를 지었다. 이은상 선생이 국역은 해놓았으나 인쇄가 중단되어 있던 시집 겸 문집인『국역농포집』도 간행하였다. 의정부 송산에 사당이 들어선 후, 그 시호를 따서 인근에 충의로와 충의중학교가 명명되고, 선생의 무덤 앞에서의 시묘살이가 이 지역 전설이 되어 그 산을 효자봉이라 불러왔는데, 이를 받아 효자중학교, 효자고등학교가 명명되었다. 이리하여 평소에 갈수 없는 북한 땅 함경도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충의공의 의병활동 역사와 국민의 무관심속에 묻혀있던 남한 땅 의정부 송산의 충의공 묘소가 비로소 의병장의 묘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해, 참배와 숭모의 열이 일어나 백일장, 학생 교육장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

5) 신도비(神道碑) : 왕이나 고관 등의 평생업적을 기리기 위해 무덤 근처 길가에 세운 비를 말한다.

2) 정문부 영정(影幀) (지정번호 제77호)



〈 정문부 표준영정 〉

의정부 송산 정문부 묘역에 충덕사(忠德祠)를 세우고 사당에 안치할 영정제작이 거론되었다. 요즘같이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자료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400여년전 정문부의 얼굴을 복원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복잡한 과정을 훗날 다른 사람을 위한 참고자료로 남겨야 할 것이라 여겨 기록한다고 정태수는 그의「가계사 기행」에서 서술하고 있다.

정문부의 이미지를 충실히 재현하여, 자타가 공인하고, 국가도 인정할 수 있는 완벽한 영정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먼저 이 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한서대학교 얼굴연구소장 조용진(趙龍鎭) 교수를 만났다. 그 분은 내가 서울교대 총장 당시 그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동료였다. 우리 두 사람은 역사적 인류학적 유전학적 이론에다, 과학적 분석을 접목시켜 어디 내놓아도 괜찮을 문화관광부 지정 표준 영정을 제작하기로 의견을 교환하였다. 영정 제작자는 윤여환(尹汝煥, 충남대)교수였다. 그 분은 논개 초상, 유관순 초상, 김만덕 초상, 박팽년 초상, 조헌 초상 등을 제작한 분이다.

종회가 열리는 2004년 2월 22일, 서울 서초동 소재 해주정씨 대종친회 사무실에 후손 대표들을 초대해 놓고, 조용진 소장과 그 연구소 직원들이 와서 두상과 얼굴 특징을 측정 채록 하였다. 그 날 71명을 초청했으나 59명이 참여해 측정을 완료하였다. 윤교수의 영정 제작 원칙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로 얼굴 고증은 조용진 교수의 연구결과와 석고상에 따른다. 둘째로 복식 고증 이었다. 경국대전 기준으로 임란 후 추증된 종1품에 맞춘 모습으로 그린다. 사모에 단령을 착용하고, 공작에 구름무늬와 목단을 그려 넣고, 대(帶)는 서대(犀帶)를 착용한다. 흉배의 크기는 가슴을 덮을 정도로 크게 그리고, 사모는 위가 평평하게, 단령은 다소 넓고, 깃은 많이 패이지 않게 하고, 의자와 신발도 임진왜란 당시의 다른 문관 영정을 참조하여 제작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제작된 농포공 영정은 여러 단계의 검토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쳤다. 먼저 의정부시를 경유하여(2004. 6. 28, 제출),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동상 · 영정 심의위원회 1차 심사에 들어갔다. 문광부에 접수된 영정초안은 그 해 8월 9일에 심의위원 10명의 심사를 받았다.회의 결과, 미비한 점의 자료를 드릴 테니 참고하여 조정하라는 것이었다.

이 요청에 의해 세 사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다시 상세히 심의 하였다. 소위원회는 영정 제작자인 윤 교수의 설명을 듣고 많은 주문을 해왔다. 끝으로 윤 교수에게 옛 것을 살리면서도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기법으로 완성해 제출해달라는 당부하였다.

마지막 3차 심사를 앞두고, 나와 후손 대표들이 윤 교수의 화실이 있는 대전을 방문하여, 우리들 눈에는 대체로 만족하다는 결론을 내고 격려하고 돌아왔다. 그런 후에 정부의 마지막 심사가 있었다. 이듬해 2005년 4월 26일, 문광부 심의위원회에서 윤교수 제작의 농포공 영정이 만장일치로 무수정 통과되었다. 영정지정번호 제77호가 부여되었다.

영정은 농포공 묘 앞 사당 충덕사의 벽면에 닫집을 짓고 모시기로 결정 되었다. 원래 영정은 영당(影堂)을 지어 모시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닫집에 모시는 경우도 많았다. 닫집이 완성되자, 대전에서 농포공 영정을 모셔오고, 서울 명동에서 농포공 석고상도 모셔왔다. 그리고 2005년 음력 9월 15일, 하유집 성균관부관장의 주재로 유림의 봉안행사와 고유제를 치른 후,농포공 정문부 영정은 제자리에 모셔졌다.6)

3.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



〈 북한 김책시 임명 북관대첩비 〉
(문화재청 홈페이지)

『조선국함경도임진의병대첩비』라는 공식 명칭을 가진 이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1592-1598)때 북평사 정문부가 이끄는 3000여 의병들이 함경도 경성, 길주, 백탑교 등지에서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의 왜군을 격파한 북관대첩(北關大捷)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던 승전비이다. '대첩비'란 전쟁에 크게 이겼다는 것을 축하하고 이를 길이 기억하기 위해 돌에 새긴 글이다. 이 비는 임란 후 바로 세운 것이 아니라, 난리가 지나간 지 1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함경도민이 마음을 모아 세운 비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사람 없어 그냥저냥 넘어갔다가, 임금이 여섯이나 바뀐 뒤인 1709년(숙종 35)에 와서야, 당시의 함경도 북평사 최창대(崔昌大)가 옛날의 전공을 조사해서 비문을 쓰고 그 지방 백성들이 비를 세운 것이다.

왜 그리 늦었고, 또 왜 민간인이 세운 것일까. 그리고 일본군이 러일전쟁(1904-1905) 때 유독 이 비의 비신만 떼어 일본으로 가지고 가서 100년을 처박아 두어, 우리 측의 거센 반환운동이 없었으면 영영 잊혀지고 묻히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까지 든다. 우선, 북관대첩비가 임란 100년이나 지난 후에 세워지고, 함경도 지역 백성들이 세우게 된 사정부터 알아보자. 다음으로 러일전쟁 중에 일본군이 왜 북관대첩비를 강탈하여 일본으로 반출하였는가를 추측해 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보자.

1. 임진왜란 후 100여년 만에 세워진 북관대첩비

북관대첩비가 함경도 길주군 임명에 세워진 것은 1709년(숙종 35)이다. 숙종대에 함경도 북평사 최창대(崔昌大)가 옛날의 전공을 조사해서 비문을 쓰고, 이명필(李明弼)이 글을 써서 함경북도 길주군 임명(臨溟)에 고을 주민의 뜻을 모아 건립하였다.

최창대는 이 대첩비를 세우기 위해 그 고장 유지들에게 말하였다. 「섬 오랑캐의 전화(戰禍)가 몹시 심하여 한성이 함락되고 팔도가 무너졌는데, 이 분들은 죽음을 걸고 외로운 군사를 이끌고 억센 도적을 무찔러, 우리나라의 발상지로 하여금 끝내 오랑캐 땅이 되는 것을 면하게 하였다. 변방 사람들이 그 풍모를

6) 농포 정문부 선생 영정제작에 대한 서술은 정태수의 글「가계사 기행」을 요약하였다.

듣고 일어나 충의를 서로 권하게 된 것이 그 또한 누구의 힘이더냐? 행주 연안에는 모두 비갈(碑碣)이 있어 사적(事跡)을 적어 그 공(孔)을 나타내었으므로, 동서로 오가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굽어보고 하거니와 관북의 거룩한 공로를 가지고도 비갈(碑碣)하나 없으니 어찌 여러분의 수치가 아니겠는가?」 하니, 이에 모두 찬성하였다. 정문부의 활약은 왜군에 승리하였다는 의미 외에 나라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던 함경도 땅을 수복하여 우리의 강토를 분명히 하였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크다 하겠다. 왜군이 공격하자, 끊임없이 북방을 괴롭히던 여진족도 그 틈을 노려 함경도의 점령을 꾀하였기 때문에, 정문부 등 의병들은 그들조차 물리쳤기 때문이다.

함경도민들은 오랫동안 조정에서 민심이 이반(離叛) 되어있어서 도리어 왜적에 협조하여 원한을 풀려 하고, 관찰사 등 지배관료는 의병을 손아귀에 움켜쥐고 자기의 공로로 하려하고, 왕은 무슨 이유인지 함경도 의병을 믿지 않고 칭찬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전쟁의 신(神)으로 또는 왜국 제일의 무장으로 추앙받는 왜장 가토 기요마사의 왜병을 몰아낸 함경도 의병은, 지옥에서 발버둥치는 의병대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역경에서 치러진 임진왜란의 전투가 이 비석 출생의 바탕이었으니, 북관대첩비의 운명도기구한 정문부의 삶과 닮아 있었던 것 같다.

이 비는 임란 후 바로 세운 것이 아니라 난리가 지나간 지 100여년이 지난 후에야, 임란 당시에는 알아주고 쳐주는 사람 없어 그냥저냥 넘어갔다가, 임금이 여섯이나 바뀐 뒤인 1709년(숙종 35)에 와서야, 당시의 함경도 북평사 최창대(崔昌大)가 옛날의 전공을 조사해서 비문을 쓰고 그 지방 백성들이 비를 세운 것이다.

임진왜란 100여년이나 지난 뒤 대첩비가 세워지게 된 원인으로는, 정문부가 당시 관찰사였던 윤탁연(尹卓然)의 미움을 산데 있었던 것 같다. 일개 평사(評事)인 정문부가 자기 휘하에 들지 않는다 하여 정문부의 군공(軍功)을 시기하고 백방으로 모해(謀害)한 까닭에 있다 하겠다. 정문부는 임진왜란 때 혁혁한 전공을 세웠지만 함경도 순찰사 윤탁연(尹卓然)에 의해 전공(戰功)이 날조되고, 박홍구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한 옥살이와 영사시(詠史詩)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하지만 정문부 사후 40년이 지난 후에야 진실이 밝혀져 신원되고, 그의 전공도 서서히 밝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생이 사망한지 85년 뒤인 1709년에, 마침내 관북의병들의 전공을 기념하는 북관대첩비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다.

2. 임진왜란 당시 북관지역 전투내용

북관지역인 함경도는 고려시대 윤관(尹瓘)의 9성 설치와 조선 초기 김종서(金宗瑞)의 6진 개척 등을 통하여 넓혀진 영토로, 역사적으로 변방취급을 당하고 중앙정부와는 괴리감이 있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임진년(1592년)에 가토 기요마사의 왜군이 침입해오자, 기회다 싶어 왜적에 아부하고 왕자와 관리를 잡아 왜군에게 넘기고, 왜군이 주는 벼슬을 받는 등 부역(附逆)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1592년4월28일,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민심을 수습하기위하여 영의정 이산해가 좌의정 유성룡등과 협의하여 장남 임해군을 제쳐놓고 광해군을 왕세자로 삼고, 백관이 조하(朝賀)를 올렸으나 교서도 인장도 없이 초라하였다.



〈 북한 김책시 임명 북관대첩비 〉
(문화재청 홈페이지)

29일에 조정에서는 왕자들을 지방에 파견하여 근왕병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함경도에는 영중추부사 김귀영(金貴榮)과 윤탁연(尹卓然)이 임해군을 모시고 가기로 하고, 강원도에는 동지중추부사 이기(李堅)와 장계군 황정욱(黃廷彧)과 그의 아들 황혁(黃赫)이 순화군을 모시기로 하였다. 당초 강원도로 들어가려던 순화군 일행이 철원에 이르렀을 무렵, 왜적이 벌써 강원도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순화군 일행은 함경도로 들어가 임해군 일행과 합류하여 회령에 머물게 되었다.

왜적은 계속 북진을 거듭하였는데 관군은 전투에서 연패를 거듭하여 두 왕자가 머물고 있던 함경북도까지 진격해오게 되었다. 함경도로 진격한 왜장 가토 기요마사 군대는 최신예 조총으로 무장하고 불패 신화를 자랑하며 불과 두 달 만에 함경도를 점령한다.

관군의 연전연패로 말미암아 극도로 혼란한 사회와 치안부재의 틈을 타 명천(明川)의 사노(寺奴) 정말수와 회령의 토관진무(土官鎭撫).[7] 국경인(鞠景仁), 경성의 관노(官奴) 국세필 등이 반란을 일으켜 왜적과 내통을 하였다. 특히 국경인은 7월 23일 마침 회령에 머물고 있던 두 왕자(임해군, 순화군)와 배종제신(陪從諸臣) 및 그 가속(家屬)들과 남병사(南兵事), 회령부사 등을 포박하여 왜적에게 넘겨주었다. 이리하여 함경도 반민(叛民)의 도움으로 북도(北道) 땅을 획득한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는 두 왕자를 볼모로 잡게 되었다.

1592년(선조 25) 7월 하순경, 북계의 수장들이 모두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잡히어 왜장에게 넘겨지는데, 이를 피해 도망쳐 나온 수령 방백은 10명중에 1~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문부는 재임 중에 형장(刑杖)을 쓰지 않고 항상 교생들에게 힘써 글을 가르치고, 그들을 보살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정문부는 8월 초에 부령에서 적이 쏜 조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단신으로 쫓기어 산야를 헤매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우연히 용성에 있는 무당 한인간(韓仁侃)을 만나서 그의 호의로 그 집에 숨어 있다가 다시 제자 지달원(池達源) 집으로 옮겨가 은신하고 있었다.

지달원의 집은 경성의 가장 외진 해변 가에 있어 일본군의 눈을 피하기 쉬웠다. 한동안 몸을 피한 채, 민심의 동향을 살펴보던 정문부는 왜군에 대한 주민들의 심기가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조정에서 명군을 끌어들여 일대 반격을 하려 한다는 조짐을 파악하자 지금이 바로 일어설 때라고 판단했다. 그는 제자 지달원과 최배천 등과 함께 은밀히 뜻있는 선비들과 무사들을 규합했다. 수백 명의 함경도 지방 군사들과 선비, 무사들이 모였고 그들은 정문부를 의병장으로 추대했다. 이어 피로써 서로 맹서하니 사기가 충천하였고, 격문에 호응한 자가 처음에는 100여 명에 불과했으나, 점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

7) 토관진무(土官鎭撫) : 고려 말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평안도 · 함경도 · 제주도 등지의 토착인에게 주었던 특수 관직.

곧이어 산속에 숨어있던 경성부사 정현룡(鄭見龍), 경원부사 오응태(吳應台), 경흥부사 나정언(羅廷彦), 고령 첨사(僉使),[8] 유경천(柳擎天), 군관 오대남(吳大男), 서북보만호 고경민(高敬民), 전 만호,[9] 강문우(姜文佑) 등이 휘하 병사들을 거느리고 합류하여 병력은 3천 여 명이 되었다. 이에 정문부가 정현룡에게 대장되는 것을 권했으나, 정현룡이 두려워하며 감히 맡지 못하고 사양하였다. 또한 모든 유생이 말하기를 「본래 의병으로 이름을 삼은 이상 평사의 벼슬이 비록 낮다고는 하나, 많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따르고 있으니, 마땅히 의병대장이라고 칭하여 통솔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하여 북평사 정문부가 할 수 없이 이를 응낙하였다. 관직체계로 따지면 6품에 불과한 평사 정문부가 의병대장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의병들은 애국충절(愛國忠節)로 무장하고 관직이 아닌 철저한 능력 위주로 조직을 꾸렸다.

정문부는 종성부사 정현룡과 경원부사 오응태(吳應台)를 부장으로 삼고, 선봉장에 유경천, 착후장에 만호 강문우, 창의별장에 이붕수(선비)로 진용이 갖춰졌으며, 이들은 함경도에서 봉기한 반란세력을 진압한 뒤 유격전(遊擊戰)으로 왜군과 싸우게 된다.

정문부가 의병을 이끌고 경성에 간 건은 1592년 9월16일로, 이때부터 의병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문부가 이제부터는 왜적을 토벌해야 한다고 여러 부장과 상의하니, 정현룡이 말하기를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니 경성만을 지키고 있다가 형세를 보아가며 치는 것이 좋겠다.」 고 하자 의병장 정문부가 말하기를 「내가 의병을 일으킨 것은 나라를 위한 일 뿐이요, 성만 지키고 나가 싸우지 않는 안방 여자의 흉내를 내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강경히 말하며 「내일 중의(衆意)에 따라 결정하겠노라」 고 하였다. 정문부는 우선 남문밖의 의군을 모아 놓고 왜적 토벌을 물으니, 의군 모두가 「대장의 뜻에 따르겠다고」 고 하였다. 이에 따라 경성은 동관참사 이응성에게 군사를 주어 지키도록 명령하고 왜적을 토벌하기 위하여 출진하여 영강역까지 가는데, 도중에서 길을 막고서 「왜적이 많아 싸우면 질 것 같으니 성을 지키며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고 하는 자가 있어 「네가 왜놈을 위하여 우리 의군을 막느냐」 하고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깃대 위에 높이 달아 군율을 엄하게 하였다.

정문부의 의병부대는 곧바로 경성부를 들이쳐 국세필(鞠世弼)일당 13명을 처단했고, 명천의 정말수(鄭末守)를 잡아 참수형(斬首刑)에 처했다. 정문부 창의진(倡義鎭) 거의(擧義)소식을 들은 회령의 유생 신세준(申世俊), 오윤적(吳允迪) 등이 국경인(鞠景仁) 일당의 목을 베어 정문부에게 바쳤다.

한편, 1592년 9월 16일, 왜장 가토 우마노조[加藤右馬允]가 거느린 군사 1500명이 길주에서 올라와 경성을 공격하자 정문부 의병부대의 후군장 강문우가 기병들을 거느리고 성 밑에 진군한 왜군을 기습하여 격퇴시켰다.

함경도 북병영(北兵營)과 북수영(北水營)이 있는 조선의 북방요새인 경성을 수복한 정문부의 의병부대는 그동안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수령들이 거의 모두 그의 휘하에 모여들어 병력 규모가 더욱 커졌다. 함경도에서 전세가 어려워지자 기요마사는 부하장수에게 1300여명의 병력을 주어 길주를 지키게 했다.

---

8) 첨사(僉使) : 조선 시대 각 진영(鎭營)에 속한 종3품의 무관으로, 첨절제사(僉節制使)의 약칭.

9) 만호(萬戶) : 고려 · 조선 시대 외침 방어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호부의 관직. 만호는 본래 그가 통솔하여 다스리는 민호(民戶)의 수에 따라 만호 · 천호 · 백호 등으로 불리다가, 차차 민호의 수와 관계없이 진장(鎭將)의 품계와 직책 등으로 변하였다.

음력 10월은 함경도에서는 한겨울이다. 추위에 익숙하지 못하고 겨울 준비가 충분치 못한 왜군은 수시로 성을 나와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며 식량과 의류를 약탈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들은 그간 조선군의 이렇다 할 본격적인 저항을 받아 본 일이 없어 경비를 매우 소홀히 했다.

10월 30일 아침에 왜군 1천여명이 성을 나와 해정(海汀) 가파리 쪽으로 행군한다는 원충노의 보고를 받고 정문부는 각 군에 통보하여 귀로(歸路)의 적군을 급습하기로 하고 대기토록 했다. 적군은 이날 하오 4시쯤 약탈한 물건을 말과 소등에 가득 싣고 경계도 하지 않은 채 길주성을 향해 장평석현(長坪石峴)을 넘으려 했다. 이때 매복하고 있던 원충노, 한인제의 병력이 일제히 적군을 덮치고 강문우, 황사원 등이 뒤따라 싸움을 거들었다. 포위망을 빠져 나간 적군이 길주성 동쪽 장덕산으로 도망가자 산정에서 대기하고 있던 고경민의 군사들이 내리닥쳐 10리를 추격하여 적군을 전멸시켰다. 이 전투에서 정문부의 의병부대는 적군 800여명의 목을 베고 군마(軍馬) 118필을 비롯한 많은 군수물자를 노획하였다. 정문부 의병부대의 활약으로 길주성 북쪽의 함경도는 거의 정상을 되찾은 가운데, 길주성 내의 일본군 잔류 병력은 꼼짝 않고 성을 지키고만 있었다.

12월에 들어 정문부는 길주성을 공격하여 탈환하기로 하고, 12월 10일에 3천여명의 병력으로 성을 에워싼 뒤, 30리 남쪽 마천령 기슭의 영동관 책성을 지키는 적군 400여명의 지원 출동을 차단하기 위해 정현룡, 유경천, 오응태가 인솔하는 3위군을 접근로에 배치해 두고 복병장 김국신(金國信)의 병력을 입구에 매복시켰다. 책성의 왜군 전원이 길주로 향하다가 정문부 의병부대의 포위망 안으로 들어와 100여명의 전사자를 내고 책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한편,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는 조선 관군과 명군(明軍)이 합세하여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군대가 주둔한 평양성을 이미 수복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고립될 것을 염려하여 철수하려 했다. 그런데 길주에 머물고 있는 왜군이 의병들의 포위망에 차단되어 나오지 못하자, 기요마사는 직접 2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천령을 넘어 영동의 왜군과 합세하여 내원하였다. 소식을 접한 정문부는 군사 3천명을 거느리고 임명(臨溟)에 거점을 삼고 매복하였다.

얼마 후 가토 기요마사의 정예부대가 영동에 이르자 정문부는 복병을 움직여 그 후미를 끊고 정현룡과 오응태의 돌격대를 재촉하여 적군을 공격하였다. 가토 기요마사는 필사적으로 응전하다가, 전세가 불리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60여리를 퇴각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 전사자들의 시체를 불태우고 밤을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이 싸움이 곧 가토 기요마사의 왜군을 함경도에서 완전히 패주시킨 백탑교전투(白塔郊戰鬪)였다.

병력 규모가 겨우 3,000여명 정도였고 대부분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오합지졸(烏合之卒)이었던 정문부(鄭文孚)의 함경도 의병부대가 조총수(鳥銃手)로 무장한 일본 최고의 정예군단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의 기갑부대를 격파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 10월 30일자 기록에는 그 전술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의병들은 함경도의 추운 날씨와 험난한 지형을 이용했고, 상대적으로 앞선 화력을 지니고 있는 일본군을 차단하기 위해 병력을 분산시킨다거나 한데 집결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한 작전을 구사한 것이 정문부가 이상 6회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이다.



〈 창의토왜도 〉

『북관유적도(北關遺跡圖), 고려대소장』는 고려 예종부터 조선 선조까지 북관 즉, 함경도에서 무공을 세운 여덟명의 행적을 그린 도첩이다.

도첩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창의토왜' 그림이 있다. 「창의토왜도」는 18세기 작품으로 작자는 미상이며, 왜군이 함경도에 들어왔을 때 의병을 일으켜 대항했던 북평사 정문부의 활약상을 그린 기록화이다.

그림 윗부분에는 정문부 장군이 두 왕자 임해군과 순화군을 잡아 왜적에게 바친 반역의 죄를 범한 국경인, 국세필 등을 참수하는 장면이며, 아래 부분은 정문부의 의병들이 왜적을 추격하여 격퇴시키는 장면이고, 성 누각에 앉아있는 사람이 의병장 정문부일 것으로 추정된다.

3. 북관대첩비 일본에 반출되다

[육군성 수령 만한(滿韓) 제4905호]

〈 북한대첩비(北韓大捷碑) 헌납건에 대하여 〉

○북한(관)대첩비는 본관이 북관지대장으로 북진할 때 한국의 함경북도 임명(臨溟)역에서 발견하여 조사하였던 바, 예전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의 조선 정벌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의병을 모집하여 기요마사의 군대를 격퇴했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 중　　략 －

○이에 금번 병참수송선에 실려 육군성으로 송부하오니 도착하면 진천부(振天府, 당시 히로시마 소재) 또는 유취관(遊就館, 일종의 군사박물관)에 봉납하는 문제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비문의 사본을 첨부하오니 이상의 것을 잘 부탁드립니다.

메이지 38년(1905) 3월 31일
육군소장 이께다 마사스께[池田正

육군대신 테라우치 마사다께[寺內正毅]

정문부는 임진왜란 때 혁혁한 공로를 세운 영웅이지만 비극의 영웅이기도 했다. 역모에 휘말린 그의 최후는 비참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고초를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문부와 함경도 의병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들의 공적을 기록한 북관대첩비가 세워지기까지 100여 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의 200년 후에 일어난 러일전쟁(1904-1905) 와중에, 함경도에 주둔했던 일본군 장교에 의해 이 북관대첩비가 강제로 일본의 손에 반출하게 된다.

일본 도쿄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는 북관대첩비 관한 자료가 남아있다. 문서에 담긴 비석의 이송 이유는 놀랍다. 현지 주민의 허락을 받아 이송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군대가 총칼을 들이대고 빼앗은 강탈일 것이다. 「비를 세운 후손을 설득하여 승낙을 받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1905년 기록문서로 북관대첩비를 일본 육군성으로 보낸 문서이다. 〈북관대첩비에 대한 자료집〉에는 일본 이께다 소장이 『북관대첩비』 약탈을 일본 육군에 품신한 문서와 회신문이 아래와 같이 실려있다.

러일전쟁(1904~1905) 당시 2사단 17여단장이던 일본 육군 소장 이케다 마사스케(池田正介)가 1905년 3월31일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다케에게 보낸 편지와 그에 대한 답신이다. 데라우치는 뒷날 초대 조선총독을 지낸 인물이다. 이케다는 공문에서 조선시대 의병이 왜군을 격파한 일을 기념해 세운 북관대첩비로 인해 북진하던 일본군 병참선이 조선인들에게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일본 육군성으로 비를 가져가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문서에는 비를 건립한 이들의 후손들에게 비를 일본으로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증서로 받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케다는 또한 북관대첩비를 일본 궁내성의 진천부(振天府 · 당시 히로시마 소재) 또는 유취관(遊就館 · 야스쿠니 신사 내 군사박물관)에 봉납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데라우치는 "이 비는 전리품이 아니므로 유취관의 참고품 등을 진열하는 장소에 두는 것이 좋으며, '전리품'이라는 말은 삼가라"고 답변했다. 또 그는 '러 · 일전쟁 중 육군소장 이케다 마사스케가 북진시 함경북도 임명역(길주 소재)에서 발견, 지방관리를 통해 건립자의 자손에게 승낙을 받아 가져왔다'는 내용을 기술해놓으라고 답신했다.

함경북도 길주를 떠난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는 히로시마에 도착한 후 도쿄로 이송된다. 전리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일제(日帝)는 전리품 정리규정을 만들고, 이 규정에 따라 모든 전리품을 정리하고 분배했다.

4. 사원에 방치된 북관대첩비 발견되다



〈 야스쿠니신사 내 북관대첩비 〉

북관대첩비(北關大捷碑)가 러일전쟁 때에 일본군에 의해 강탈되어 야스쿠니 신사에 옮겨진 이후 일본인들은 한국인의 애국심과 민족정신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이수(螭首)를 없애고 비석 머리부분에 엄청난 무게의 바위돌을 올려놓아 비석에 균열이 생기도록 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북관대첩비를 강탈하여 훼손하려 한 까닭은 일본 입장에서는 치욕스러운 패전(敗戰)의 역사가 비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의 담당자들은 왜 북관대첩비를 가져와서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으슥한 곳에, 그것도 이수(螭首)마저 제거하고 3톤 무게의 바위를 비석의 머리 부분에 얹어놓은 상태로 보관했는지 지금까지도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10) 이수(螭首) : 용(龍)의 형체를 새겨 장식한 비석의 머릿돌을 말한다. 이(螭)자는 본래 뿔이 없는 용 또는 교룡(蛟龍)을 가리키는 글자이다. 그 용어와 양식은 중국에서부터 사용한 것으로, 본래는 이기(彝器) · 비액(碑額) · 석주(石柱) · 석계(石階) · 인장(印章) · 종(鐘) · 정(鼎) 등의 표면과 머리 부분에 용의 형체를 조각하여 장식한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비액의 이수가 형체나 크기로 보아 가장 대표적인 것이어서 오늘날의 일반적인 개념이 되었다.

야스쿠니 신사는 20세기 초 일본이 영토 확장을 위해 전개된 대외침략전쟁(對外侵略戰爭)에 참전했던 일본의 전몰자들을 위령(慰靈)하는 사당이다. 여기에 조선의 북관대첩비가 100년 동안 무거운 바위를 짊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북관대첩비를 발견한 최초의 한국인은 조소앙(趙素昻, 본명은 趙鏞殷)이었다. 1904년 최린·최남선 등과 황실 유학생으로 일본에 파견된 조소앙은 1909년 야스쿠니 신사에 갔다가 우연히 이 비를 발견했다. 그 소감을 『大韓興學報』 제5호(1909.7)에 소해(嘯海)라는 아호를 써서 「함경도 임진의병대첩비문」 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揭載)하였다. 조소앙은 야스쿠니 신사 후원에 북관대첩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 비의 원문을 전문 소개하면서, 오호통재라! 며 통탄의 소감을 적었다. 조소앙은 당시 조선이 합병되기 직전 일본 유학생으로 이 전승비를 보고 탄식의 글을 쓴 것이었다.

두 번째 발견자는 이생(李生)이라는 익명을 쓰던 분이다. 1926년 동아일보 기사(9월19일자)에는 이생이라는 분이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북관대첩비를 확인하고 자세히 보려다가 일본 헌병에게 금지를 당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 이 비석 옆에 나무비가 있었는데, 「이 비에 대첩이라 했지만 사실과는 전연 상반되니 이 비를 믿지 말라」 고 야스쿠니신사 측에서 써 놓았다고 한다. 이생은 이 소중한 비가 일본에 의해 혹시 없어질 까봐 안타까워 한국 사람에게 알려 달라고 동아일보에 호소했던 것이다.

그렇게 세월이 수십년 지난 1978년, 재일 한국인 최서면(崔書勉)이 유학생 조소앙이 쓴 글을 읽게 되고, 야스쿠니 신사를 뒤져 비석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그는 야스쿠니신사에서 북관대첩비를 발견한 후, 그 사실을 박정희 정부에도 통보하여 세상에 알리게 된다. 당시 조선일보에(1978. 4.12)에도 대서특필되었다. 그때부터 반환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듬해인 1979년 최초로 한국 정부는 북관대첩비 반환을 일본에 요청하게 되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절한다. 그 해 박정희 암살로 인해 북관대첩비 이야기는 세상에 묻히게 된다.

5. 북관대첩비 100년 만에 반환되다

정문부의 후손들은 한국에 알려진 직후부터 반환운동에 매달렸다. 종친 모임을 열어 대책을 세웠으며, 수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반환을 요구했다. 그 후 일본에서도 반환운동이 일어났다. 1996년에 일본의 승려인 가키누마 센신이 야스쿠니 신사에 반환을 촉구하였고, 야스쿠니신사에서 처음으로 공식 서한을 받기도 했다. 「당 신사에서는 한국과 북한의 합의가 이뤄지고 한국정부가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하면 속히 반환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하여 드린다.」 는 내용이다. 한국과 일본의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북관대첩비 반환운동을 펼친 센신스님은 2000년 한국에서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초산스님을 만났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불교계가 연합하여 북관대첩비 반환 운동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에는 「북관대첩비환국 범민족운동본부」 가 출범하게 된다. 한국에서 고군분투했던 초산스님은 북관대첩비 반환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야스쿠니신사측의 대답은 한결 같았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서는 남북간 조정이 필요하며 신사에 반환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는 「비석은 원래 북한의 길주에 있었던 것이니, 남북이 통일되면 돌려주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취하며 북관대첩비 반환을 계속 거부하였다.

한국의 초산스님, 일본의 카키스님, 두 분이 의정부 송산의 충의공 묘전에 와서 참배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그 후 정치인, 문화재청, 통일부가 나서서 「해방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반환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북관대첩비가 있었던 야스쿠니신사는 일본 전몰자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곳으로, 일본 정치인들의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한국을 비롯하여 주변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곳이다. 이곳 한 귀퉁이에서 100년을 참고 견뎌온 북관대첩비의 머릿돌을 안전하게 떼어내느라 정과 망치, 드릴까지 동원되었지만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잘못하면 비석이 훼손될 수 있었다.

1톤 무게의 머릿돌, 일제가 조선의 민족정기를 짓누르기 위해 올렸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킨 돌이다. 머릿돌을 떼어낸 후 하단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콘크리트 더미에 비신(碑身)이 단단히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 작업 또한 정교한 손길이 필요했다. 힘든 해체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고유제가 열렸다. 한국의 제관들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제사를 올리는 이례적인 행사였다. 야스쿠니신사의 후미진 곳에서 100년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북관대첩비에 후손들은 조상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비석(碑石)의 무사귀환을 빌었다. 이것은 단순히 비석 하나를 돌려받는 일이 아니었다. 조선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사건이었다.

북관대첩비는 숙종 35년, 1709년에 세워진 비석이다. 높이가 187cm의 약 1500자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이 비의 반환 당시의 역학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비가 건너갈 때에는 한 · 일 두 나라뿐이었으나, 올 때에는 남북한 간에 휴전선이 그어져 있어 두 나라가 세 나라로 상황변화가 되어 있었다. 더구나 그 중의 남한과 북한은 여행도 할 수 없는 구간이어서 이 비가 어느 쪽으로 가도 그렇지만, 특히 북한으로 가게 되면 또다시 갇혀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 불 보듯 뻔하였다. 후손 정태수는 대첩비 반환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남한에 보관해두었다가 통일 후에 원위치 시키자는 것이었지만, 이 주장은 일본의 원위치 복원주의와 맞서는 것이어서 실현성이 없어지고 말았다. 더군다나 북한은 수십 년간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고만 있었다. 한 · 일간의 싸움을 관전만 한 셈이다. 이와 같이 3국간의 역학관계가 충분히 변화된 때에 한국에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광복 60주년(2005년)이 왔다. 이를 계기로 북쪽의 동의를 얻은 것이 결정적 촉진요인이 되었다. 우리 한국 측이 주체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주는 측과 받는 측 사이에 거간꾼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만히 있는 북한에게 우리 측이 다가가서 친절히 동의를 구하고, 일본에의 교섭을 재개하여 그쪽 조건을 들어주고 하여 일을 성취시켜나갔다.

북관대첩비는 일본이 주고 북한이 받으면 끝날 사안인데 왜 그 중간에 한국이 나서서 30년간이나 힘들여 중개하게 되었을까. 그 답 뒤에는 오직 정문선생의 후손이 남한에 살고 있고, 그들의 반환 발의가 불을 붙였다는 것이 그 동력이며, 여기에 민족정기가 가세하고 정부의 친북화해정책이라는 힘의 작용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손이 남한에 없었으면 한국이 나설 없음으로 이번 반환문제는 출발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이 나서서 반환운동을 벌이는 것이 정도인데, 이 일을 대행한 것이 남한정부의 친북화해 이데올로기였고, 성사의 에너지였다 할 것이다. 북한은 손도 까딱 않고 가만히 앉아서 보물 하나를 되찾게 되었던 것이다.

1) 국립중앙박물관, 고궁박물관에 잠시 전시되다

북관대첩비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직접적 계기는 2005년 6월에 열렸던 제15차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서였다. 여기에서 남북대표단은 조금은 이례적인 합의 결과 하나를 발표했다. 남한과 북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비석을 반환받기로 하고, 서로 협조하에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 후 한국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수차례 비석의 반환 노력을 기울여 2005년 10월 20일에 드디어 비를 반환받게 되었다.

이 비석은 임진왜란사와 의병활동사에 관한 귀중한 역사적 자료인 동시에 남·북간의 잃어버린 역사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일본의 원로서예가 요코오 세이사부로씨는 이 비의 탁본(1996년)을 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탁본을 하면서 비석이 진동하며 울부짖는 것을 느꼈다" 했고 "하루 빨리 한국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이 탁본은 가키누마 센신(柿沼洗心)스님이 보관하고 있다가 2000년 우연한 기회에 만난 한국의 초산 스님에게 전해졌다. 천안 독립기념관 전시실에 이 탁본의 사본이 전시돼 있다.

2005년 10월 20일 1백년 만(1905년 반출)에 한국으로 돌아온 북관대첩비는, 그해 막 이전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의 길에서 처음으로 몇 개월간 전시되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 비를 관람하였다. 그 후에 문화재청은 경복궁 고궁박물관 앞뜰에 전시하고, 다음해 3월1일 북한개성에서 북관대첩비를 약속대로 넘겨주었다.

2) 대첩비 정문부 무덤 영역에서 고유제 지내고, 북한에 인도되다.



〈 묘역내 북관대첩 복제비 〉

북관대첩비는 북한에 인도되기 하루 전(2006.2.28) 오후에는 의정부 정문부선생 묘역에서 북관대첩비 원본을 두고 고유제가 열렸다.

문중대표와 후손, 그리고 경기도지사 등이 정문부[충의공] 의병장 묘소에 참석해 제향(祭享) 하였다. 다시 말해 정문부선생과 비석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장소에서 대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 야스쿠니신사에서 출발하여 서울 경유, 북한 길주(현 김책시) 임명으로 가는 비석이, 정문부 의병장을 뵈러 온 것이다.

정문부선생이 가신지 80여년 뒤에 탄생한 이 전승비가, 일본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 비행기를 타고 와서 처음으로 농포선생을 만나러 온 것이다. 더구나 다음날 삼일절에는 또 개성으로 떠나는 비석이니 정말 기구한 해후가 아닐 수 없다.

묘역에서 정중하게 고유제를 지낸 후, 원본 대첩비는 북한에 인도되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3월 1일 개성에서 남측으로부터 인수한 북관대첩비를 국보유적 193호로 등록하고 관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당시 청장 유홍준)은 북관대첩비가 함경북도 김책시 임명리 현장에 복원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 8장을 통일부를 통해 북측으로부터 전달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북측은 복원된 북관대첩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보유적 제193호」로 등록하였으며, 김책시 인민위원회 명의로 북관대첩비를 설명하는 표지석과 안내석을 나란히 세웠다. 받침돌 주변에는 작은 자갈돌을 깔았으며, 그 옆으로는 잔디를 심어 단장하였다.

한편, 일본으로부터 반환된 북관대첩비 비문의 한글 번역은 노산 이은상(李殷相)선생이 했다. 또한 실물크기로 완성된 북관대첩비 복제비가 국립고궁박물관 앞뜰에 전시되었다. 북관대첩비 복제비의 비석은 충남 보령의 애석(艾石)으로 제작되었으며,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보유자인 석공예장 이재순씨가 조각을, 석공예 조각가 이재영씨가 글자를 새겼다.

북관대첩비 복제본이 위치한 곳은 서울 경복궁 고궁박물관 앞뜰, 의정부 송산 정문부 묘역 앞,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앞뜰, 경남 진주 충의사 경내에도 세워져 있다.

4. 정문부 묘역 내 전시관 설립의 필요성

농포 정문부선생에 대하여 기록했던 유명한 문사의 글을 소개하면서, 묘역 내 전시관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파죽지세로 조선의 수도 한양을 향해 진격해온 왜군 고니시(小西行長)와 가토(加藤淸正)는 팔도분할계획에 의거하여 가토가 함경도로 진격하였다.

평소 중앙의 차별정책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함경도민들은 민심을 수습하라는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해군과 순화군 일행이 지방민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것에 격분하여, 이를 기회로 두 왕자를 잡아 바치고 스스로 왜군의 앞잡이가 되어 그들의 침략을 도왔다. 이에 가토는 힘들이지 않고 함경도 전역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 함경도에서는 이 뿐 아니라 북쪽에 있던 여진이 남침해 오는 상황까지 겹치고 있었다.

이렇듯 북침해 오는 왜군과 나라에 반역한 반란군, 북쪽에서 침입한 여진족의 문제까지 합쳐져 함경도 지방에서 의병을 일으키기란, 반란군이 없었던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문부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것이다.

함경도 '북평사(병마평사의 준말)'의 직위에 있었던 정문부는 처음 백여 명의 인원으로 창의병을 일으켜 안밖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안으로 반적 국경인, 국세필, 정말수 등을 목 베고, 밖으로는 경성전투를 시작으로 길주 · 장평 · 쌍포 · 단천 · 백탑교 등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어 왜병 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 이를 통칭하여 '북관대첩'이라 한다. 또 여진족까지 토벌 순무하여 함경도 땅 천여리를 모두 수복하고 국경 6진(경원, 경흥, 온성, 종성, 회령, 부령)을 공고히 하였다.

남도의 의병과는 달리 관북지방에서는 첨사나 만호등 주로 현직에 있었던 무관들이 의병으로 활약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함경도 지방에서 이미 관군의 기능이 마비되었고 이들이 의병으로 통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조정이나 중앙에서는 이들 의병들의 항쟁을 지원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음해하고 견제하기에 급급했던 듯싶다. 정문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북관대첩의 승리로 함경도 지역 의병의 지휘권은 자연스럽게 정문부에게로 귀속되었는데, 이를 시기한 감사 윤탁연의 그릇된 보고로 인해 정문부는 이후 전란 극복의 논공행상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공을 세운 휘하 의병들 또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로써 의병에 참가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도(北道)사람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왜군이 철수한 1593년 4월에 이르러서는 그 지휘권마저 병사(兵使)에게 옮겨감에 따라 의병들의 활동은 더욱 위축되고 말았다.

정문부는 임란이 끝난 후 중앙의 당쟁을 피하여 길주목사등 주로 외관직을 자처해 지방을 전전했고, 말년에는 의정부 송산에 살면서 농포집 5권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사력을 다해 피하고자 했던 시기와 질시로부터 끝내 자유롭지 못해 결국 그가 창원부사 때 지은 초 회왕(楚懷王)의 시가 인조를 빗댄 것이라는 죄로 고문사 당하였으니 향년 60세였다.

억울하게 화를 입은 지 41년 만에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의 상소에 의하여 누명이 밝혀지며 신원이 회복되었고, 90년만인 1713년(숙종 40) '충의공(忠毅公)'이라는 시호를 받고, 부조전(不祧典,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의 위패를 영원히 모시게 하는 것)을 윤허(1788)받았다. 임진왜란 일등공신 좌찬성 대제학으로 추증되었고, 그의 공덕을 기려 함경도에 창렬사 등 네 사당에 배향되었다. 남한에는 건국 후에 지은 진주 충의사와 의정부에 충덕사가 있다. 예전에 발표했던 정문부선생에 대한 선인의 글을 소개한다.

노산 이은상선생은 정문부에 대한 글을『국역 농포집』머리말에서,

「충무공 이순신을 비롯해서, 그 당시 국가와 민족을 구원해 낸 위대한 공로자들을 수많이 헤아릴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농포 선생과 같이 기이한 공적을 세운 이는 극히 드물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충의공은 첫째, 북으로 들어간 왜장 가등청정(加藤淸正)의 억센 군대와 싸워야 했고, 또 둘째, 왜적에 부역하여 우리 왕자와 대관들을 사로잡아 주고서 조국에 반역행위를 한 국경인(鞠景仁), 국세필(鞠世弼) 등 악한 무리들을 지혜로써 무찔러야 했으며, 또 셋째, 우리의 어려운 틈을 타서 침구해 오는 북쪽 오랑캐들과도 싸워야 했던 것이다.

이같이 한때에, 한 칼로써, 삼중 전투(三重戰鬪)를 감행하고, 또 능히 모두 다 승첩을 거두었던 것이야말로 임진란 전체 역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사적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농포의 승첩은 국가의 도움이란 추호도 없이 오직 충의로 부르짖어, 흩어진 민심 속에서 불러일으킨 민간 의병(民間義兵)에 의해서 된 것이었고, 또 거기서도 윗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입어 어려운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던 것을 헤아리면, 충의공이 과연 위대한 인물임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세상에는 작은 공로를 세우고도 큰 상을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큰 공을 세우고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오히려 박해를 입어 슬픈 최후를 마치는 이도 적지 않음을 보거니와, 농포 선생은 실로 그 짝을 찾기 어려운 큰 공을 세우고도 오히려 억울한 최후를 마친 비운의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더욱이 우리 역사가 살아있는 인물에게는 온갖 박해를 가하다가, 그가 죽은 뒤에는 새삼스럽게 그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거의 통례처럼 되어 있는 그것을 나는 더 슬퍼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나마 인물을 도로 살려서, 후세의 역사상에 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혹시 불행 중 다행한 일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기록하였다.

또한 정문부에 대한 이병주(李炳注, 1921~1992,언론인 · 소설가)선생의 역사기행문 일부이다.

「나는 정문부의 행적을 밟고 있는 동안, 어떻게 이만한 시인(詩人)이, 이만한 영웅(英雄)이, 이만한 공신(功臣)이, 이만한 지절(志節)높은 인물이, 대중에 회자(膾炙)되지 않고 문서의 더미 속에서만 묻혀 있었을까 하는 의혹과 아쉬움을 가졌다. 정문부야 말로 다산(茶山) 〈목민심서〉의 필법으로 범례가 될 수 있는 목민관이며, 해전(海戰)의 이순신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육전(陸戰)의 대승리자이고, 지(智)와 용(勇)에 있어서 제갈량(諸葛亮)[11] 을 방불케 할 인재인 동시, 그 비극적인 생애로 인해 더욱 기막힌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우리 역사엔 그 자질과 공훈에 있어서 응당 빛나야 할 사람이 후인들의 태만과 고루한 타세(惰勢)에 의하여 망각의 먼지에 묻혀버린 예가 수월찮게 있는데, 이 정문부야말로 새롭게 현창되어야할 인물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이병주는 정문부 묘역을 답사하고 쓴「길따라 발따라」란 역사기행문에서 이렇게 힘주어 역설했다.[12]

옛 선인(先人)들의 글을 생각하며 정문부묘역을 돌아본다. 우리는 지금 농포 정문부 선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하고 자신에게 반문해 본다. 예전보다는 많이 정비되었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는 걸 느끼게 된다.

더구나 북관대첩비는 한반도 민족사에 있어서 민족저항 정신을 대표하는 위대한 상징물인 동시에 한반도 민족의 외세 극복정신을 나타내는 소중한 역사적인 문화재이다. 이러한 역사상의 기념비적인 호국영령이 깃들어 있는 북관대첩비가 있는 곳이 함경도 지역이라 현장답사(踏査)를 할 수 없음에 갑갑하고 섭섭한 마음이 앞선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한반도가 통일되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겠다.

의병장 정문부가 전투했던 함경도 지역은 우리에게는 너무 생소한 지역이다. 그래서 한반도 지도를 이용해 의병장 정문부와 의병들이 왜군을 물리친 북관대첩지역을 표시하고,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앞에서 선인들이 기록했던 글을 보아도 정문부선생은 존경받고 현창(顯彰) 받아 마땅한 분이다. 더구나 문화재가 그리 많지 않은 의정부로선 지정된 문화재를 잘 정비하고 후세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시 당국과 해주 정씨 종중에「의병장정문부전시관」설립을 제안한다. 막연하게 이야기로만 전하지 말고, 정문부 묘역 공간에 전시관을 세워,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림과 패널을 이용해 활용했으면 하는 심정이다.

진품은 전시하기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라 사본 복제본일 수밖에 없겠지만, 정문부 선생을 제대로 알려야 할 의무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시 당국과 종중, 그리고 의정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정문부 전시관 설립이란 프로젝트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조하여 전시관이 세워질 수 있기를 두 손을 모아 간절히 소망한다.

---

11) 제갈량(諸葛亮) : 중국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정치가 겸 전략가. 명성이 높아 와룡선생(臥龍先生)이라 일컬어졌다. 유비(劉備)를 도와 오(吳)나라의 손권(孫權)과 연합하여 남하하는 조조(曹操)의 대군을 적벽(赤壁)의 싸움에서 대파하고, 형주(荊州)와 익주(益州)를 점령하였다. 221년 한나라의 멸망을 계기로 유비가 제위에 오르자 승상이 되었다.

12) 이병주의 역사기행 「길따라 발따라」, 행림출판사, 1984. 재인용

5. 끝맺으며

북관대첩비는 함경북도 북평사 직을 맡고 있던 정문부(鄭文孚)가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모아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이끄는 왜군을 무찌른 전투를 소상히 기록한 전승비이다. 높이 187cm, 너비 66cm 두께 13cm로 1500자가 새겨져 있다. 1707년(숙종 34) 북평사 최창대가 함경북도 길주군 임명면(현 김책시 임명동)에 세웠다. 헌데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일본군 제2사단 17여단장 이케다 마사스케(池田正介) 소장이 일본으로 가져갔고, 그 후 반환될 때까지 야스쿠니 신사에서 방치된 채 보관되었었다.



〈 최서면 원장 〉
사진 김덕련

1978년 재일 한국인이자 한일 관계의 권위있는 연구자인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이 우연하게 전날 유학생 조소앙이 기록한 글을 발견하고, 확인한 결과 야스쿠니 신사에서 북관대첩비를 발견하였다. 그 후 한국 정부는 일본에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다가, 2005년 3월 28일 한일 불교복지협의회가 베이징에서 북조선의 조선불교도연맹과 만나 최종적으로 북관대첩비를 북조선에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북관대첩비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직접적 계기는 2005년 6월에 열렸던 제15차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서였다. 남한과 북한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비석을 반환받기로 하고, 서로 협조하에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그 후 한국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수차례 비석의 반환 노력을 기울여 2005년 10월 20일에 드디어 비를 반환받게 되었다.

그리고 동년 10월 28일에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이전 개관식 때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2006년 2월 13일 남북간에 북관대첩비 북조선 환송에 관한 협의를 가져, 3월 1일에 개성에서 인도하였다. 3월 23일 북관대첩비가 원래 자리인 임명에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 북한은 2만 여m^2 보호구역을 조성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받침돌도 건립 당시의 받침돌을 그대로 사용하였다한다. 동년 4월 25일에는 북관대첩비의 복제비가 건립되어 경복궁을 시작으로, 국내 여러 곳에 전시되었다.

앞에서 북관대첩비에 얽힌 내용과 정문부 선생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펴보았다. 임진왜란의 역사적 자료인 북관대첩비의 내용을 정리해 함경도에서의 임진왜란사와 의병활동사를 연구하여 농포 정문부 선생을 현창하는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후배들이 연구하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정문부 묘역 동쪽 부지 공터에 「정문부사료관」을 만들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당시 정문부의병장이 활동했던 지역을 지도패널로 준비하여 표시하고, 북관유적 도첩, 북관대첩비 번역문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전시하였으면 한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에 전시된 정문부에 관한 자료 사본도 정리하여 전시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자라는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좀 더 알기 쉬운 교육자료가 되지 않을 까 싶다. 더불어 사료관 한편에 편리시설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끝 〉

의정부시 현대연극사[략]

(議政府市 現代演劇史[略])

극단허리 대표 유준식





1990년 4월 극단 휴서사 창단식

의정부시는 양주로부터 갈라져나온 곳으로 예로부터 큰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기에, 의정부시의 공연예술은, 지금도 전승되고 있는 양주별산대놀이뿐만 아니라, 양주 상권이 흥성하였던 의정부나 퇴계원 등에서도 산대놀이가 별도로 행해졌었다. 근대에 '의정부산대놀이'가 있었다는 사료가 있으며, 또한 다락원이나 장수원, 의정부장 등이 성행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또 다른 갖가지 연희(演戱)도 이루어졌으리라 짐작된다.

이렇듯 공연예술이 성행해온 지역적 풍습과 기질 등이 콩쿨대회 등의 모습으로 현대에까지 이어져오다가 드디어 온전한 현대 연극의 형태로 부활하기에 이르렀으니, 1976년부터 대학생동아리인 「성성회」의 탄생이 바로 그다. 「성성회」는 '환상부부'를 시작으로 '쥐덫', '뜨거운 양철지붕위의 고양이' 등 10개 연극 작품을 1986년까지 11년간 연례적으로 공연하였다.

그 분위기를 이어 1981년도부터는 또다른 대학생 동아리인 「의정부유스제이씨」에서 '유리동물원', '달라진 저승' 등의 연극을 1996년도까지 공연하였다.

「성성회」는 현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옆에 위치한 한라비발디아파트 자리에 있던 양주군청 강당과, 현재는 자동차 매매상이 들어선 옛 의정부교육청 강당, 삼화예식장 등지에서 주로 공연하였고, '의정부유스제이씨'는 현재 대한적십자사 북부희망나눔북부센터로 바뀐 옛 의정부RCY 강당에서 주로 공연하였다.

그 기운이 커져 드디어 1989년 극단「휴서사(휴전선과 서울 사이)」가 창단되니, 이는 의정부시에 각계의 전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온전한 프로현대극단이 출범되었음을 알리는 획기적 사건이었다. 화가 이병학, 배우 권용운, 화가 박창식, 조명디자이너 김명남, 메이크업디자이너 이왕일, 배우 김용주, 국악 이종진, 극작 겸 연출에 유준식 등 14명이 모여 단체를 결성하였다. 1990년 4월 1일, 연극을 주 사업으로 정하고 유준식씨를 초대 단장으로 하여 창단식을 하니, 의정부 현대프로연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연극 〈만남〉

그해 9월, '국물있사옵니다'를 창단기념공연으로 막을 올리고, 이어서 '회룡문화제'에 초청되어 의정부시의 지명유래의 역사를 소재로 한 마당극 '회룡가'를 창작, 공연하였다. 2회정기공연 '라마 사박다니'를 올리면서, 창단공연과 회룡가 공연, 그리고 급격히 확대된 후원회원들의 후원 등의 결과들에 힘입어 기숙사를 꾸미고 전용소극장까지 만들게 되니, 1991년 4월 1일, '휴서사소극장'을 개관하게 되었던 것이다. 휴서사소극장 개관 기념공연으로 '일어나라 알버트'를 공연하였는데 이 공연은 이후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사기충천한 단원들의 의욕과는 반대로 경험없는 정열가들의 부푼 꿈은 곧 무너지고 말았으니, 자금난으로 '휴서사소극장'을 폐관하고 형편에 맞춰 허름한 지하연습실로 옮겨가게 된다. 방수도 안되어 음습하고 냉랭하기 그지없는 연습실에서 유준식 연출, 주철 기획으로 권용운, 이희선, 명학수 등의 배우들이 차기작품 '굿닥터'를 수개월간 에 걸쳐 연습, 제작하여 공연에 돌입하였으나 마지막날 주연여배우인 이희선이 실신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지고, 1992년 새해를 맞으며 극단「휴서사」의 단원들은 뿔뿔히 흩어지며 재기의 몸부림만을 치게 되고 말았다.

그 즈음에 극단「제3세계」가 까페떼아뜨르 형식의 공간에서 탄생하였으나 또한 곧 스러지고, 청소년극단「풋나기」가 창단되어 의정부시청소년문화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또, 의정부시청 앞의 현재 미락촌 식당이 있는 건물 지하에는 '파랑새소극장'이라는 아동극 전용극장이 잠시 존재하다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지기도 하였다.

1994년에는 의정부에 거주하던 전위퍼포먼서 무세중 선생과, 의정부YMCA에서 청소년연극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당시 의정부YMCA 총무 현성주씨, 동두천여상 연극반 조성대 선생, 극단 제3세계 대표였던 김충웅, 그리고 극단 휴서사 단장 유준식 등 지역 연극인들이 모여 무세중 선생을 초대 지부장으로 하는 한국연극협회 경기북부지부(현 의정부지부의 전신)를 창립하고 '통일로 가는 길' 등의 작품을 공동제작하였다. 또한 그 분위기에 힘입어 김충웅씨는 아동극을 주로 공연하는「한샘극단」을 창립하였다.

1995년 초, 유준식, 이왕일, 송종관 등 극단「휴서사」의 몇몇 단원들과 강하형, 박정근, 장소림, 박영학 등의 새로운 젊은 연기자들은 다시 단합하여 이름을 극단「허리」로 바꿔 재기의 발걸음을 내디디게 된다.



극단「한네」

미군부대(Camp 'Falling Water') 맞은편에 자리한 허름한 건물(당시 의정부YMCA) 지하에 단원들이 직접 다시 소극장을 꾸미기 시작, 마침내 수개월여만인 그해 9월 23일, '허리소극장'을 개관하였다.

밤낮없이 연구하고 훈련하였으며 공연을 계속 올렸으나 역시 문화예술의 불모지라는 경기북부에, 더군다나 유흥문화의 산실로 불리우는 의정부에서, 공연은 관객을 위한 공연이 아니라 그저 미친 사람들의 살풀이에 지나지 않았다.

거의 모든 단원들이 극장바닥에서 자고 먹으며,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한달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훈련하고 공연을 준비하곤 했지만, 그나마 몇몇의「허리」매니아들도 썰렁한 극장에 오기가 미안해질 정도였다. 당연지사 극단이나 소극장의 운영은 어려워져 갔고, 할수없이 소극장을 까페떼아뜨르 형태로 바꾸어 운영하기까지 하였다.

그래도 극단「허리」단원들의 온갖 고통과 희생을 담보로 공연은 계속 만들어져 점차로 사람들이「허리」를 인식하게 되자, 여기저기 공연초청이 들어오고 단원도 늘어나 제법 스케일 있는 작품도 올리게되고, 월간문화예술소식지 '허리'도 창간하고, 청소년극단「꿈농사」와 직장인극단「고구려」, 주부극단「예와생」등을 부설운영하기에까지 이르렀다. 극단「허리」의 전성기가 온 것이다. 당시 극단「꿈농사」단원은 이소정, 오세화, 김유화, 조청옥, 이현중, 이주미, 이윤선, 이경민, 남선영, 이병훈, 안중호, 이효주 등이었고, 극단「고구려」단원은 공현덕, 임세진, 김민진, 조은진 등이었는데, 이 중 공현덕, 임세진, 김민진, 조은진, 이소정, 오세화, 김유화, 이경민, 이효주 등은 후에 극단「허리」로 입단하게 된다.

1996년에는 의정부시에 주부극단이 탄생하게 되니, 최병화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하여 창단한 주부극단「한네」가 그것이다. 그해 12월, 주부극단「한네」창단공연 '욕탕의 여인들'이 극단「허리」와 허리소극장의 후원으로 허리소극장에서 막을 올린데 이어 제2회 정기공연 '신의 아그네스'도 허리소극장 신관에서 극단「허리」후원, 유준식 연출로 막이 오르며 주부극단「한네」는 그 역사를 펼쳐나가게 된다. 주부극단「한네」의 단원은 최병화 대표, 전영옥 총무를 비롯하여 문인옥, 오경숙, 원유순 등이었다.

극단「허리」의 전성기는 1997년, 1998년 즈음이었으니 '오장군의 발톱', '허리의 햄릿' 등 굵직한 작품들을 포함하여 년 평균 10작품 이상의 공연을 끊임없이 올리고, 1998년 가을에는 좀더 크고 깔끔한 허리소극장 신관을 개관하기에 이른다. 이 극장에서는 유준식 대표의 연기 수업 이외에도 김규태 선생의 안무, 안찬모 선생의 풍물과 민속춤 가르침이 펼쳐져 단원들뿐만 아니라 청소년극단「꿈농사」의 단원들도 무료로 강력하고 깊이있는 공부와 워크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때 무엇보다도 커다란 극단허리의 성과는 통일극 '만남'의 탄생과 유준식 모노드라마 '품바'의 대성황이었다. 이후 극단「허리」하면 거개 이 두 작품을 거론하게끔 되었다.

문화예술의 불모지에서도 극단허리가 고난을 무릅쓰고 한결같은 움직임을 보이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공연포스터나 거리공연을 보고, 또는 삐에로놀이, 풍물놀이,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으로 극단「허리」단원들이 거리홍보나 타 문화행사를 할 때에 시민들은「허리」로 뛰어들어 함께 하였다. 음료수, 김치, 쌀, 라면 등의 생필품에서 비롯하여 의상이며 소품꺼리들을 제공하는가 하면, 작품연습 때마다 들러 의견도 내고 지적도 하며 극단「허리」와 함께 울고 웃고 이끌어주었다.

그리하여 극단「허리」에는 자연발생적인 운영위원회와 후원회가 생겨나게 된다. '극단허리 운영위원회'는 사승언, 김남용, 김상근, 김상오, 김준호, 김한일, 문희상, 박상순, 박성자, 박춘욱, 박태운, 손광운, 송재남, 여규현, 이광수, 이완우, 이운안, 이용주, 이주형, 정선태, 정성호, 지철호, 한성희, 허인규 씨 등이었다.

'극단허리 후원회'는 대강 다음과 같았다.

강상열, 강태순, 강희경, 견진필, 곽헌규, 권승혁, 권영광, 기국서, 김경환, 김경훈, 김광석, 김광휘, 김규헌, 김기범, 김기세, 김기형, 김두만, 김명규, 김명이, 김명철, 김범수, 김법성, 김병기, 김병수, 김복성, 김봉석, 김상철, 김성돈, 김성환, 김숙희, 김영대, 김용식, 김용우, 김용희, 김원곤, 김윤식, 김정란, 김진경, 김진열, 김창숙, 김평암, 김학성, 김학수, 김효열, 김희화, 남궁봉덕, 남동희, 노경재, 노경래, 노희석, 류선무, 무세중, 문병인, 박돈선, 박돈신, 박봉수, 박상원, 박세혁, 박순범, 박영순, 박영신, 박재영, 박정우, 박종필, 박현수, 백영주, 변희선, 석영익, 소홍삼, 손천락, 송복윤, 송인만, 송태규, 신과식, 신다혜, 신동선, 신비산, 신세용, 신양호, 신재경, 신진희, 신혜숙, 심비산, 심상오, 안도관, 안순자, 안승일, 안용식, 안창희, 애경이네, 양승천, 양영모, 엄관석, 엄영룡, 여경선, 여규태, 오동식, 오세웅, 용윤식, 유광식, 유근식, 유문식, 유민수, 유병천, 유선경, 유영미, 유영애, 유춘식, 윤동노, 윤원영, 이갑희, 이건식, 이규천, 이규철, 이근식, 이기철, 이동식, 이동엽, 이명우, 이상미, 이상열, 이승철, 이용택, 이윤정, 이윤조, 이윤희, 이인기, 이재인, 이정임, 이정희, 이종상, 이주호, 이지선, 이진주, 이창오, 이철규, 이충훈, 이현철, 이홍재, 임경진, 임창렬, 장상준, 장석문, 장현동, 정남용, 정병렬, 정양호, 정윤구, 정이훈, 정인섭, 정호영, 조규석, 조성대, 조수동, 조영선, 조영순, 지영구, 진애주, 차해환, 채춘자, 최기영, 최병화, 최승우, 최양진, 최주영, 하재광, 한연재, 허광봉, 허근회, 허명근, 허찬범, 현호준, 홍경표, 홍의석, 홍종식, 홍현실, 황기숙, 황수경, 황인석, 황행일 등. 이들은 지금까지도「허리」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한다.

2000년, 새천년을 기념하며 극단「허리」는 공부해온 우리 가·무·악·극을 현대화, 미래화시켜보자는 '우리 뮤지컬' 계발의 첫발자국을 찍는다.

통일극 '만남'의 확장판 '로미오+줄리엣 of DMZ'를 의정부실내체육관에서 대대적으로 벌리었던 것이다. 이는 의정부연극사에 획기적인 일이라 할 만한 것이었으나 또한 의정부연극의 쇠퇴를 자초하는 사건이기도 하였으니 총력을 기울여 벌인 것이 지역사회의 반응을 못 얻고 패망함으로써 한 방에 모든 힘을 잃기도 한 이면이 있기 때문이었다.

단 한 번의 총력전으로 모든 힘을 잃은 극단「허리」에 그 몇 배의 타격이 더해졌으니 그는 바로 '의정부예술의전당'의 탄생이다.

드디어 비로소 의정부시에 훌륭한 공연장이 생겼는데 타격이 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이는 여러모로 의정부연극사에 큰 변형을 가져왔는데, 그 첫째는, 지금까지는 '휴서사 소극장', '한얼소극장', '파랑새 소극장', '허리 소극장' 등 모든 극장들이 연극



마당극 〈회룡가〉

단체에서 연극 전용 공간으로 운영하던 소규모의 것이었으나, '의정부예술의전당'은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복합 대형 공간이었기에 혼자서 모든 관객을 다 흡수해버리는 현상을 가져와 기존해오던 고군분투의 풀뿌리 문화 단체들이 굶어죽어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의정부예술의전당'의 설립목적이나 운영방침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겠으나, 이러한 거대한 문화 지표의 변화에 초라한 각개 예술가들이 알아서 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지역 문화 에너지의 상실이며,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면면(綿綿)한 문화의 계승'의 단두대 역할을 한 것이니, 이를 문화발전의 에너지로 삼지 못한 의정부시청 등 지역문화행정 리더들의 실책이라고도 할 것이다.

의정부시에 훌륭한 극장이 들어섰는데 극단「허리」는 있을 곳조차 잃어 동두천 미2사단 캠프 케이시 뒤의 산 속에 있는 조그만 폐교 걸산분교로 터를 옮겨간다. 이때에 기적적인 일이 발생하는데, 이창오씨 등의 후원회원들이 앞장서서 "유준식은 없어져도「허리」를 없어지게 할 순 없다"는 캐치프레이지를 외치며 '허리 살리기' 운동을 벌여 시민들의 후원금 모금 운동이 벌어졌고 그 결과 의정부시청 앞에 '허리 소극장'을 재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극장에서 '밀레니엄 품바'와 '주무세요, 엄마' 두 작품만을 무대에 올리고 또다시 경영난에 부딪히게 된다.

이때 극단「허리」는 거대한 지각 변형 앞에 제대로 된 인식과 대처는커녕 힘까지 다 빠진 상태였는데, 기껏 내놓은 방향성이 예전부터 품어온 청·소·유년에 대한 문화운동이었다. 하여, '우리나라의 허리' 만이 허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허리'도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허리이니 우리 삶의 허리인 '가정' 내지는 '가족' 문화를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2001년 3월, 가족극 전문 극단「뮤지컬컴퍼니 그린아이」를 병설한다.곧이어 그 창단 공연으로 가족뮤지컬 '도깨비와 황소탈'을 공연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으나 잘못된 기획으로 앵콜공연을 벌여 쇠퇴를 재촉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 작품은 평가가 좋아 이후 강북구, 전쟁기념관, 현대백화점 등에 초청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그린아이」의 레퍼토리로 자리잡게 된다.

2001년, 극단「허리」의 동두천 걸산리 걸산분교 시대는 아름답고도 처참한 시대변환점이었다. 그러나 극단「허리」는 그 시대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듯하다. 그리하여 의정부1동에 있던 영화관 국도극장의 후원 아래 그 지하2층에 '허리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소극장 재건을 하며 다시 의정부시내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또다시 '문화운동'이라는 영원한 사명을 펼치기 위해 얼마 안남은 미력한 힘으로 전력투구한다. 제일시장 주변을 돌며 거리공연을 일삼고 2001년도 한 해에만 생활인들을 향한 페스티벌을 두 번이나 개최한다.

2002년에는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의 후원으로 일본 오끼나와에서 통일극 '만남' 초청공연을 하게 되는데 모든 일본 관객들을 눈물바다로 만들어 작품성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경영상의 나쁜일을 당하여 '허리공간'에서 쫓겨나오다시피 하게 되고 극단「허리」는 일개 개인사업자처럼 의정부역 서부에 위치한 해태프라자에 쪽사무실 하나를 임대해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창작 의욕과 지역 문화 운동에 대한 일념으로 뮤지컬 '미녀와 야수'를 대극장 버전으로 만들어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 올려 호평을 받아 강북구의 초청공연을 하였고, 이어 통일극 '통일반점'(원



코리안 락 뮤지컬 〈로미오와줄리엣 of DMZ〉

제:통일익스프레스)을 공연하였는데 또한 좋은 평가를 얻어 의정부예술의전당 토요문화살롱에 초청되어 앵콜공연한다.

가을에는 [우리연극]을 현대화하고자 공부해온 것들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로 전국민족극협회(약칭'민극협') 의정부지부를 창립한데 이어 민족예술 각 장르의 연대체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약칭'민예총') 경기북부지부(현 의정부지부)를 창립한다.(초대 지부장 유준식) 이에는 하창범 대표가 이끄는 「풍물굿패 살판」(현 예술마당 살판)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던 민족굿위원회 의정부지부와 김규상씨가 이끌던 민족음악인협회 의정부지부, 이지연씨가 이끌던 민족춤위원회 의정부지부 등이 함께 하였다.

「예술마당 살판」은 엄격히 따지면 우리나라 전통연극(연희)을 이어받아오고 있는 단체로, 1991년에 김영만, 박희정, 이동훈, 박배진, 홍인호 등에 의해 서울에서 창단되었다. 1999년에 의정부지부가 하창범씨를 대표로 하여 탄생하였고, 이어서 살판 본부도 의정부로 옮겨오게 된다. 그간 살판이 창작하고 공연해온 작품으로는 '하늘다래', '바람을 타고나는 새야', '낮술', '心心Free(심심푸리)', '촌철살인굿', '학수고대' 등이 있다.

2004년, 극단 「허리」는 '전국전통연희계발작품축제[의정부가족극한마당](약칭:UFF)'라는 긴 이름의 축제를 개발해내어 년례적으로 개최하는데, 이에는 우리 전통연극과 가족문화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 활성화시켜보려는 의지가 숨어있다. 전액 자비(自費)로 예산을 마련해 이끌어가던 이 축제는 결국 서서히 쇠퇴하여 5년간이라는 적지않은 노력에도 아랑곳없이 2009년, 6회차를 이루지 못하고 그해부터 잠정중단에 들어가게 되고 말았다.

2005년에 극단허리는 사회적 안정화 없이는 훌륭한 창작 활동이 힘들다는 판단 아래 독지가의 후원에 힘입어 서울 대학로(혜화동)에 극예술전문기획제작법인 「(주)빙떼아뜨르컴퍼니」를 설립하고 '코리언 락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of DMZ]'를 대학로 사다리아트센터에서 무대에 올리고 이어 동숭아트센터 씨어터일에서 앵콜공연을 펼친다. 그러나 상업뮤지컬의 대중성 앞에 통일극이라는 무거운 테마의 섣부른 실험극에 경험도 전문성도 부족한 마케팅은 패망을 면치 못하고 극단 「허리」는 사상초유의 심각한 몰락지경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후 극단 「허리」는 '유준식 모노드라마 아버지', '엿먹은 다윈' '서울깜둥이' 등 년간 두 세 편의 작품과 '의정부가족극한마당' 등을 간간이 의정부와 대학로에서 공연하며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의정부시 현대연극사 [략]

극단「한네」는 여성, 장애인, 노인, 그밖에 소외된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대변하는 연극을 하자는 취지 아래 봉사의 정신을 잃지 말자는 마음으로 전공연을 무료로 행해 오고 있다. 또한 초기엔 기성 작품을 공연해오다가 2000년부터는 극단 대표인 최병화 씨가 직접 대본을 쓰고, 공부하는 마음으로 매년 새로운 주제를 정해 창작하고 연구하며 토론하는 방식을 고수, '노을풍경', '먼지', '가을에세이', '부부별곡', '신데렐라주식회사', '꽃을 받아줘' 등 끊임없이 창작품을 무대에 올려오고 있다. 그 결과 각종 대회에 나가 여러가지 상을 수상했으며, 그동안 발표했던 최병화 씨의 작품들이 두권의 희곡집으로 엮여 출간되었고, 그 중에 〈최병화희곡집1〉은 2007년 우수문학 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1년부터는 "한네연극교실"을 열어 생활연극을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의정부문화원」은 2010년 의정부시의 문화테마를 발굴, 개발한다는 원대한 취지로 극단「허리」와 함께 뮤지컬 '의순공주'를 창작, 공연하였다. 이는 의정부 연극사는 물론 한국연극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으니, 모두가 사대주의에 휩싸여 이른바 라이센스 뮤지컬에 혈안이 돼있을때 '나의' 생산품을 계발하여 세계에 내놓으려는 생산적 의지를 보인 주체적인 작업이었다. 또한 극단허리의 역사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간 우리 나라, 휴전선 인접 지역, 경기북부 등으로 인식해오던 극단허리의 작업 근거지를 "바로 내 집 -'의정부'로부터"라고 자각케 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소멸해가고 있던 창작 동력을 강력하게 되살아나게 한 것이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이후로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문화 테마를 발굴하자는 분위기가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의순공주' 붐이 일기도 하였다. 의정부문화원은 이어 총체극 '회룡가', 총체극 '정주당놀이' 등 의정부 문화테마를 개발, 창작하는 작업을 극단「허리」등과 손잡고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다.

의정부문화원이 의정부연극사에서 빠질 수 없는 또하나의 이유는, 의정부문화원 내에 있는 소극장「문예극장」의 활성화 때문이다. 그간 시설의 열악함과 지리적 불편함 때문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재롱발표회나 아마추어단체들의 자체발표회 등으로만 이용될 정도로 소외돼오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적 기획과 시설의 보강 등으로 전문적인 작품 공연장의 하나로 부상하려는 노력에 힘입어 프로 연극 공연들이 이루어져나가고 있다.

극단「허리」는 뮤지컬 '의순공주' 이후 온전히 부활하여 총체극 '회룡가', 통일극 '만남', 총체극'정주당놀이' 공연에 이어 '도깨비와 황소탈', '발명왕 에디슨', '희망의전도사 헬렌켈러',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등 네 편의 가족뮤지컬을 동시에 창작하여 전국순회공

극단「허리」로미오와 줄리엣





극단「허리」뮤지컬 의순공주

연을 하는 등 왕성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명불허전 프로젝트 1 [안톤체홉의 사랑3]'을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에 이어 대학로에서 3개월 이상 장기공연을 해냄으로써 명실상부한 의정부연극의 면모를 다시 보여주었다. 현재 극단허리는 서울시 도봉구 창동역 앞에 1년365일 공연하는 상설 가족극 전용관 [가족문화를 되살리는 '창동극장']을 개관하여 전국구 상설 공연을 시작하였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은 명실상부 의정부의 훌륭한 공연장일뿐만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공연장 중 하나이다. 의정부예술의전당 내에는 상주단체로 두 극단이 들어와 있는데 인형극단인「예술무대 산」과 극단「하땅세」다. 둘 다 어린이극을 주로 공연하는데 치열하게 창작 작업을 하는 단체로 국내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펼치고 있다.「예술무대 산」은 2001년 창단하여 '크리스마스 캐롤', '뿌요의 인체여행', '뒤죽박죽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등을 창작하여 왔다. 2007년 창단한 극단「하땅세」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개구리', '붓바람', '천하제일 남가이', '파리대왕' 등을 무대에 올려왔다.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진흥시키자고 만든 문예회관 상주단체 제도가 변질되어 타지역의 극단이 의정부의 문예회관에 들어와 지원받으며 작업하는 것이 의정부연극사에 편입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엄연한 의정부예술의전당의 판단이니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의정부는 이렇다할 특화된 산업이 없다. 예로부터 각국이 다투던 접경지역으로서 특유의 진한 유흥, 퇴폐, 오락 문화의 풍습이 이어져 내려온 면도 없지않다. 여기에 교통요지로써 상권이 흥성하게 되면서 생활 속 공연예술 문화까지 뒤범벅되어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남부러워할 수도 있는 뜨거운 공연예술의 피를 간직하게 된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의정부의 크기에 비해 전문, 비전문의 공연 형태의 문화가 과다할 정도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풍습과 기질에 적잖이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방치하면 한없이 방탕한 생활로 비쳐지기만 할 것이요, 억누르면 음성적 퇴폐문화로 번질 것이요, 공연예술 문화로 양성화(陽性化)시킨다면 의정부가 현대와 미래 시대에 훌륭한 문화산업도시로 거듭나는 소중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게다가, 의정부는 소중한 국제적 문화테마를 가지고 있으니 이는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분단-통일'이라는 테마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전국 유일의 통일극단「허리」가 있다. 의정부 고유의 문화작품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정부문화원도 있고, 전국 최고의 좋은 무대「의정부예술의전당도」있다. 열심히 우리연극을 재창조하고있는「예술마당 살판」도 있고, 생활연극을 줄기차게 활성화해나가고 있는 극단「한네」가 있다.

이러한 여러 내, 외의 이유로 의정부 연극의 미래는 밝다. 미래까지 역사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의정부연극사(議政府演劇史)는 휘황찬란하다 할 것이다.

가을에 만난 천년고찰 회룡사(回龍寺)

이국진 (의정부문화원 이사, 칼럼니스트)

Ⅰ. 회룡사 탐방을 기획하며





젊었을 때는 사물을 그저 눈으로만 보았다. 피상적으로 봤다. 유적지를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유명하다니까 그저 겉핥기식으로 다녀왔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외쳤던 유명한 경구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Veni, vidi, vici)'를 살짝 패러디한다면 '왔노라 보았노라 집으로 돌아갔노라'로 표현할 수 있다.

나이가 조금씩 들고 내공이 쌓이면서 사물을 깊이 바라보게 된다. 이제는 '왔노라 보았노라 그리고 느꼈노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문화재의 주인공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어떤 궤적을 밟았는지 당시 시대상은 어떠했는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인물을 추적하다보면 시공을 초월해 선인을 인간적으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가깝게 느끼게 된다.

수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풍파에 깎이고 닳아진 문화재를 관통해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발견하다보면 수많은 생각과 감동이 교차한다. 이처럼 체험을 통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역사탐방은 스스로 의미생산을 한다는 지적(知的) 즐거움을 주고, 새로운 탐구에 따른 인식을 확장시킨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선생도 젊어서는 치열한 생존과 목표를 향해 전력투구하느라고 놓친 주변의 작은 존재들에게서 어느날 문득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처럼 절제되고 적확한 시어를 통해 자신의 감수성을 표현하셨다.

인간은 늘 보는 것만 보고 익숙함에 길들여져 있으면 성장하지 못한다. 자신을, 혹은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곳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려면 그 곳에서 빠져나와서 멀찌감치 바라봐야한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 봐야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재발견하게 된다. 즉 자기 범주를 벗어나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이 있어야만 성숙한다.

이번 회룡사 탐방은 이런 성찰에 대한 실천의 여정이다. 의정부문화재를 하나씩 둘러보면서 문화재가 생겨난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살펴보고 문화재에 담긴 선인들의 정신을 느껴보고자 하는 의식에서 출발했다. 그 첫 번째 방문지가 회룡사였다.

II. 첫째 날 방문

11월 8일 망월사역에서 회룡사로 올라가는 산의 절경은 11월 날씨답게 대기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화려한 가을의 절정을 살짝 넘어선 풍경은 깊어가는 가을의 운치와 고풍스러움으로 산 전체에 아우라를 발산했다. 계절 탓일까? 삼삼오오 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의 모습도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여서 명상을 하거나 산의 정취를 느끼기에 제격이었다.

산은 날씨와 계절에 따라 그리고 산을 오르는 사람의 기분과 상태에 따라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산을 오른다는 것은 오롯이 자신과 대면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 회룡사의 이모저모

회룡사에 들어섰을 때 첫 느낌은 매우 단아하고 아늑했다. 사찰 창건 이후 천년이 훌쩍 넘는 세월 속에서 켜켜이 쌓아온 수많은 역사적 이야기를 묻어둔 채 고요한 정적만이 방문객을 맞이했다.

사찰 내 왼쪽 담장을 따라 올라가다보면 끝자락에 있는 약사전을 제외하고, 경내 가운데에 있는 오층석탑을 둘러싸고 경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범종각과 대웅전, 삼성각, 극락보전, 설화당, 취선당이 빙 둘러서 있다. 범종각 아래에는 석조가, 앞쪽으로는 관음보살상이 각각 자리잡고 있다. 불당 지붕아래 단청의 단아한 아름다움이 눈길을 끈다.



〈 대웅전 〉

불전건물에 유독 단청이 많은 이유는 귀신을 물리치고 화재를 막아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불전을 장엄하고 아름답게 장식함으로써 신성한 공간으로 만든다는 뜻도 담고 있다.

단청이란 오행사상에 따라 청, 적, 황, 흑, 백의 오방색을 기본색으로 배합해 목조 건축물에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놓는 것을 말하는데 장엄함과 화려함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경내 작은 연못에 예쁜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물고기들이 움직임이 거의 없다. 설화당 문간에는 점잖은 개가 사람이 다가가도 미동도 없이 무심히 엎드려 있다.

이 곳 동물들도 주인을 닮아서 도를 닦고 있는 것일까? 경내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정적으로 흐르는 가운데 이따금 바람이 불때마다 풍경이 청아한 소리를 내어 절의 신비감을 더한다.



〈 관음보살상 〉



〈 단청 〉



〈 풍경 〉

2. 회룡사 사찰명소개

회룡사는 681년(신문왕 1)에 의상이 창건해 법성사로 이름지었다. 회룡사로 불리게 된 연유는 두가지 설이 전해진다.

첫째는 1384년(우왕 10)에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이 절에서 3년동안 창업성취를 위한 기도를 드렸는데 태조는 석굴암에서, 무학은 무학굴에서 각각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

그 뒤 왕위에 오른 이성계가 이곳으로 무학을 찾아왔다고 해서 절 이름을 회룡사라 하였다고 한다. 즉 왕이 돌아왔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두 번째 설은 1403년(태종 3) 태조 이성계가 방원이 벌인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에 울분하여 고향인 함흥으로 갔다.

왕위에 오른 태종은 아버지인 이성계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 모셔오기 위해 차사(사신)를 보냈으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함흥차사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되었다.

1403년(태종 3) 마침내 이성계가 노여움을 풀고 서울로 돌아왔고, 무학을 만나기 위해 이 절을 방문했다. 무학대사는 왕의 귀환을 기뻐하여 이 절의 이름을 회룡사로 명명했다는 설이 있다.

태조 이성계와 회룡사는 의정부의 정체성이라고 여겨질만큼 의정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즉 의정부를 소개하려면 이성계와 회룡사의 인연부터 풀어나가야 한다.



〈 석굴암 〉

Ⅲ. 둘째 날 방문

1. 주지스님과의 인터뷰

첫 날 회룡사 방문은 회룡사에 대해 이미 인터넷이나 자료에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방문이후 회룡사를 알고자하는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한국전쟁으로 회룡사의 기록이 모두 소실되었다고 하지만 스님들은 이전 스님들로부터 대대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와 사찰에 대해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사찰을 탐방하면서 느꼈던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스님을 만나 뵙기로 했다.

11월 12일 회룡사를 다시 올랐다. 산은 전날 비가 온 탓인지 며칠 새 낙엽이 모두 떨어지고 가을은 막바지로 저물고 있었다. 스님은 설화당 안으로 필자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설화당 안 벽에는 전 주지이자 지금의 사찰을 지은 도준스님과 혜주스님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있었다. 주지스님의 성함은 성타스님으로 37년째 회룡사에 머물고 계신다. 스님은 따뜻한 차를 건네시고는 전통문화에 대한 식견이 짧은, 그래서 못내 옹색하기만 한 필자의 질문에 성심껏 대답을 해주셨다. 천년이상 지속되어왔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회룡사의 역사 한가운데서 현재 회룡사의 산증인으로 살고 계시며, 후대에는 회룡사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기록될 주지스님과 마주하니 감회가 몹시 새로웠다.

스님께 회룡사에 대한 자료가 매우 한정적이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예상대로 한국전쟁 당시 사찰이 모두 소실되면서 자료 또한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증거자료는 남아있지 않으나 연혁이 있으므로 회룡사에 대해 전해져오는 이야기는 '설'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말씀도 하셨다.

스님의 이 말씀은 회룡사 창건에 관한 것으로 여겨졌다. 회룡사 창건이 두가지 견해가 있는데 신라때 의상대사에 의해 초창되었다는 설과 조선 초에 무학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는 견해가 있는데 무학

대사 이전의 사실은 전하는 자료사가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 스님의 생각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회룡사는 한때 무학대사가 계시던 시절에는 3천명의 스님이 계셨을 정도로 번성했다고 하니 지금과는 달리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절터에는 유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회룡사에서 북쪽으로 100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는 석굴암(향토유적 8호)에서는 주초석, 계단석, 석등, 탑신 등이 발견되어 현재 절에 소장되어있다고 한다. 아마 작은 바위암자여서 전쟁중에 폭격을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의하면 석굴암은 태조가 창업성취를 위해 3년을 기도드렸던 곳이며, 백범 김구 선생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기 전 한때 피신하였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석굴암에는 김구선생 필적 암각문이 남아 있으며 김구 선생이 암살당한 후 주민들에 의해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서쪽으로 1200미터 지점에 석굴이 있는데 무학대사가 정진하던 곳이라 하여 '무학굴'이라고 부르는데 무당들이 기도하기위해 사용하게 된 이후로 현재 사찰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2. 도준스님과 회룡사

회룡사는 천년이상 이어온 만큼 그 부침도 심했다. 한국전쟁 중에 전각이 모두 전소되었다는 것만 봐도 당시 전투 상황이 얼마나 격렬하고 치열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절을 북한군들이 요새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군이 없앴다는 것이다. 전쟁은 일반적으로 적군에 의해서 초토화되지만 때론 긴박한 전시 중에 자국이나 우방의 군인들에 의해 자국의 도시나 문화재가 희생되기도 한 점은 못내 안타까운 일이다.

당시 한국전쟁이 끝나고 초토화된 회룡사를 복원하기 위해 도준스님이 미군부대 사령관을 찾아가 '당신들이 절을 없앴으니 절을 새로 짓게 재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령관은 '절을 부술 때 남아있는 재료들이 있을테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으나 결국 나무들을 보내주게 된다. 그런데 이때 나무를 배달하던 한국인이 나무 4분의 3을 빼돌리고 4분의 1만을 회룡사로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스님께 이 말씀을 들으니 당혹스러움에 말문이 닫혔다. 전쟁으로 인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보니 양심을 저버렸던 것일까?결국 부족한 나무로 불당을 짓다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찰에 비가 새고 쥐가 생기고 급격히 무너져갔다고 한다.

당시 지은 전각들은 예전부터 전해오던 공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전통 문화적 가치가 매우 컸을텐데 안타깝게도 현재 남아있지는 않다.

한 개인의 욕심 때문에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사찰을 잃고 말았으니 문화유산보존 측면에서 보더라도 보통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비극은 한국전쟁뿐만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시절,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에게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던 일제가 또 다시 승려들에게 반격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스님들을 강제로 결혼시켰다고 한다. 결혼으로 생긴 처자식을 볼모로 삼아 스님들이 일본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술책이었다. 우리 종교의 법도마저 말살하려 했던 그들의 악랄함에 치가 떨렸다. 대처스님(처를 데리고 산다는 뜻)은 바로 이러한 연유로 생긴 일제강점기 시대의 산물이다.

회룡사는 이처럼 모진 외세의 침략과 격변하는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 자리를 의연하게 굳게 지키고 있다. 회룡사의 굴곡진 역사는 곧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전쟁으로 모두 소실된 사찰은 앞서 밝혔듯이 도준스님에 의해 1954년부터 복구를 시작했다. 1971년 대웅전을, 혜주스님에 의해 1987년 석조관음상이 봉안되었고, 1989년 범종각, 96년 극락보전과 삼성각, 2000년엔 설화당과 취선당을 증개축했고, 2013년에는 약사전을 이전 준공했다.

이 곳은 이전엔 비구스님이 사셨지만 도준스님 이후부터 비구니 사찰이 되었다고 한다. 수도권북부지역의 최대 비구니 사찰이다.한국전쟁이후 스님들이 여름과 겨울에 3개월씩 참선을 하는 선원을 만들었고, 포교와 법회 또한 여는데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어린이 법회가 이곳에서 열린다.

3. 불전 벽화의 의미



〈 대웅전의 벽화 '심우도' 〉

불전건물 벽화의 의미를 스님께 들을 수 있었다. 대웅전에 있는 벽화는 '심우도(십우도라고도 한다)'다.

불도를 닦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을 열 가지 소에 비유하여 그려져 있다. 스님이 고삐 풀린 소를 찾아서 길들인 다음 소를 타고 자유자재로 다닌다. 그런 다음 스님이 마음을 내려다보는 그림이다. 즉 보림의 시간(자신의 마음을 찾아서 길들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스님이 갖은 기행을 한다. 그 후 외부나 내부의 어떤 유혹이나 변화무쌍한 감정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깨우쳤다' 혹은 '해탈했다'라는 불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 극락보전의 벽화 '지옥도' 〉

극락보전 벽에는 '지옥도'가 그려져 있다. 지옥에 가면 금생에서 행한 것을 염라대왕이 따져서 지옥이나 극락으로 보내는데 지옥에 간 사람은 고통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처님으로부터 업장소멸 받아서 극락왕신한다는 내용이다.

4. 오층석탑의 보수공사 현장

한 시간 남짓 스님과 말씀을 나눈 후 불당 밖으로 나왔다. 마침 오층석탑을 보수 공사하고 있던 문화재 수리 기술자에게서 공사 현황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이 석탑 역시 한국전쟁으로 심하게 손상되어 1979년 탑신과 옥개를 새로 만들어 복원, 현재까지 보존해 왔으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일부 파손된 곳이 생겨 수리 중이었다. 까맣게 변해버린 옥개석 가장자리에 처리한 몰타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문화재용 수지로 처리를 했다고 한다. 이전에는 석탑주변에 잔디를 깔아놨으나 잔디가 습기를 머금는 습성이 있어서 잔디를 거둬내고 그 자리에 마사(풍화된 화강암)를 새로 까는 중이었다. 습기로 인해 문화재에 손상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문화재보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문화재 수리하는 현장을 처음 보고 문화재 수리 기술자와 대화를 나눈 것도 처음이었다. 이분들이 문화재를 보존하고 명맥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한 것 같아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오층석탑은 신라시대 때 회룡사를 창건한 의상(義湘)의 사리를 봉안했다는 전설이 있다.

15세기에 왕실 발원으로 건립된 석탑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 석탑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 오층석탑 〉

이 석탑은 2003년 황수영박사님에 의해 향토문화재에서 경기유형문화재로 승격되었다. 마침 11월 17일자 조간신문에서 황수영박사님에 대한 기사가 크게 실려 잠시 소개한다. 11월 15일 경주 앞바다 문무대왕 해중릉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서 황수영박사의 공덕 추모비 제막식이 열렸다는 기사다.

박사는 한국 미술학계 거목으로써 동국대 교수, 총장을 지냈고 불교미술의 탑 · 불상 · 공예 등 광범위한 연구를 펼쳤으며 고고학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신 분이라고 소개되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 발전에 대단한 이바지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회룡사 오층석탑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향토문화재에서 경기문화재로 승격하도록 추진했으니 의정부 전통문화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분이다. 회룡사를 조사하면서 이처럼 생각지 못하게 주변 정보들까지 알게 된 점은 부수적인 성과였다.

Ⅳ. 탐방을 마친 소회

언론매체와 대중문화를 전공했고 신문 · 방송 · 학계에 몸담아 왔던 필자지만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지 않다. 그러나 철학은 있다.

하나의 문화재를 볼 때는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문화재가 만들어진 배경과 역사적 맥락, 어떤 변천을 거쳐왔고,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입체적이고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평소 소신이다. 따라서 문화재를 체험하기에 앞서 역사를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역사와 각각의 문화재들은 몸통과 가지와 같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역사를 알면 문화재를 전체적인 틀 안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탐방을 통해 이런 필자의 생각이 조금 유연해졌다. 즉 역사에 대한 사회과학적 조사방법은 귀납적인 방법도 있지만 연역적인 방법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퍼즐 조각을 맞춰 그림을 완성하듯이 개별적인 문화재들을 통해 역사 전체를 조명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룡사 탐방은 전통문화를 완벽하게 알아야겠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필자가 아는 지식체계 안에서 문화재를 관찰하고 체험해본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주지스님과, 문화재 기술자와 회룡사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생하게 현장감있는 체험을 했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크다. 탐방을 위해 자료를 찾으면서 회룡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도 느꼈다.

하지만 회룡사의 모든 것을 알아내는 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 모른다. 대웅전 안에 있다는 신중탱화도 보지 못했다. 주지스님과 인터뷰를 위해 설화당 안에 들어갔을 뿐 다른 불당 안은 살펴보지 못했다. 아쉬움이 남아 있지만 스님들이 기도하시는 곳이어서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 다음에 회룡사를 찾아갔을 때 또 다른 발견의 기쁨을 느낄 여지를 남겨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전통문화재 관련 용어들이 매우 난해해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찰 관련 문화재가 많다보니 한문과 불가 용어들이 주를 이루는데 문화재 안내문이나 문헌에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래야 전통문화는 딱딱하고 어렵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누구나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신 주지스님이신 성타스님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 올린다.

우리가락이 한데 어우러지는

제10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경기도의 민속예술이 펼쳐지는 제10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가 10월 16일~10월 17일 양일간 경기도 의정부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제10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는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발굴과 전승, 보존을 위해 격년제로 열리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소년민속축제이다.

경기도 각 시 · 군에서 지역의 풍습과 정서를 담은 민속놀이, 농악 등의 대표 민속예술 공연축제로 경연형식으로 진행되며, 올해에는 경기도 25개 시 · 군 청소년이 참여하는 이번 축제는 경연 대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경연자인 청소년과 관객이 즐길 거리가 풍성하였다.

개막식에는 "동방의 빛 · 한국의 소리"라는 주제로 의정부시립무용단과 비보이 퓨전 MC 가 남녀노소 누구나 흥겨워할 수 있는 콜라보레이션 공연으로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의 화려한 막을 열었다.

16일 연천의 수레울길놀이를 시작으로 17일 여주의 신지리 장채놀이까지 경기도 25개 시 · 군 청소년이 참여하여 각시군의 전통 민속예술을 경연하였다.





공정한 심사로 제10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의 대상은 평택의 평택어업요, 최우수상은 우리 의정부의 버들개 농요가 차지하였다.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팀은 전국대회인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특히 올해는 민속 연희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도 진행 되었다. 야외공연마당에서는 16일 청소년예인챔버오케스트라의 클래식 공연, 밴드 The Play의 K-pop공연과 17일 JINJO CREW의 비보잉과 타악그룹 붐붐의 공연으로 각 장르가 다채롭게 어우러지는 공연 한마당이 이어졌다. 또한, 16 · 17 양일간 의정부 청소년 동아리의 공연으로 더욱 풍성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

그 외에도 야외체험마당에서는 규방공예, 우드아트, 컬러비즈, 초크아트, 타악기 체험, 전통놀이 체험, 다문화 전시, 포토존 등 전시 · 체험 행사와 먹거리 마당을 통해 한식, 분식, 다문화음식 등 다양한 먹거리들이 준비되어있어 관람객과 경연참여 청소년들이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다.

폐막식에는 의정부이미숙무용단, (사)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경기북부지부 등이 합동 공연한 "풍무악놀이"로 경연자와 관객이 하나 되는 대화합의 장을 끝으로 펼치며 2일간의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의 막을 내렸다.





의정부문화원 소식

우리고장 바로알기








문화가족 타지역 문화유적답사







명사초청 강연회





나라꽃 무궁화 전시회








의정부시야외물놀이축제










의정부문화원 소식

제10회 경기도민속예술제



예절교육사 양성



정주당놀이 재연사업



의순공주 대제 재연사업










제29회 회룡문화제










사랑나눔 시낭송의 밤






의정부문화원 소식

의정부시사 편찬









방과후학교 문화예술교육

















제30기 문화학교 운영

















의정부문화원 소식

어르신 문화학교













찾아가는 문화활동









향토유물전시관운영







2015
의정부문화원 문화학교

교육기간	2015년 1월 1일~12월 31일
신청자격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 가능
문 의	의정부문화원 ☎872-5678 홈페이지 www.iloveculture.or.kr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의정부문화학교'는
전 시민 모두가 '한사랑 한문화'를 몸에 익혀
뿌리 내리게 하는 시민문화의 생터입니다









문화학교 프로그램

구 분	강 좌		요 일	시 간
전통	경기민요장구	초급	화	14:00~17:00
		중급	월	09:00~12:00
		고급	수	10:00~13:00
	서도민요장구		금	10:00~13:00
	한국무용	초급	화/목	11:00~12:30
		중급	화/금	13:30~15:00
	규방공예		월	10:00~13:00
	전통생활자수		화	09:00~12:00
	닥종이인형		수/금	10:30~14:30
	수제도장 만들기		화	10:00~13:00
	서예	한글	화	10:00~13:00
		한문	목	10:00~13:00
	문인화		수	10:00~13:00
	한국화		금	10:00~13:00
미술	서양화	수채화	화	10:00~13:00
		펜화(3개월)	화	15:00~18:00
		공모전	수	10:00~15:00
		인물소묘	목	10:00~13:00
		서양화	금	10:00~13:00



구 분	강 좌		요 일	시 간
일반	디지털사진교실(기초)		월	10:30~14:30
	밸리댄스	초급	수/금	10:20~11:40
		경력자	화/수/목/금	10:00~11:20
	요가	오전 I	화/목	09:30~11:00
		오전 II	화/목	11:00~12:30
		오후	월/수	15:00~16:30
	기타	클래식초급	화	13:00~16:00
		클래식중급	수	10:00~13:00
		통기타	목	10:00~13:00
	오카리나		월	13:00~16:00
	첼로	레슨1	금	09:00~11:30
		앙상블1	금	11:30~13:00
		레슨2	화	10:00~12:00
	난타	초급	목	14:00~16:00
		중급	월	14:00~16:00
		고급	수	14:00~16:00
아동	청소년예인챔버오케스트라		1,3주 토	13:00~15:00
	창의미술 6세~10세		금	16:00~17:20
	미술 고학년		1,3주 토	13:00~16:00
야간	밸리댄스		화/목	19:30~20:30
	오카리나		월	19:00~20:00
	요가		화/목	19:30~21:00
	인체소묘		수	19:00~21:00

회룡문화

통권 제30호

의정부문화원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123
031)872-5678 www.iloveculture.or.kr